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머리말

국가유산 안내판은 우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안내사항을 올바르게 제공하여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유형별 국가유산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13년에 실시한 안내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까지 국가유산 명칭 영문표기 기준규칙, 공공디자인 지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유산 안내판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8년 공공언어로써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국가유산 안내판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국가유산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산 안내문안 작성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문단을 설치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국·영문 감수를 받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안내판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람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관람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 디자인, 설치 위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국가유산 안내판에 관한 지침을 망라하여 단계별 절차와 안내문안 작성법, 작성 사례, 디자인 요소와 제작,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발췌 자료 목록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2009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18

문화재 영어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19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2020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2022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문화재청, 2016



목 차

I. 가이드라인 개요

1. 개념	010
2. 목적	011
3. 안내판 정비 과정	012
4. 안내판 설치 점검표	013

II. 안내판 정비 전

1. 안내판 문안 작성	015
1)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016
2) 안내문안 작성 원칙	030
3) 안내문안 작성 방법 및 사례	038
4) 안내문안 작성 사례	044
5) 안내문안 영문 작성 가이드라인	052
2. 안내판 디자인	077
1) 안내판 형태 및 크기	078
2) 안내판 소재 및 색상	081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3) 안내판 정보요소	083
4) 안내판 설치	092
5)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이해	093
6) 안내판 디자인 사례	098
3. 안내판 Q&A	106

III. 안내판 정비 후

1. 안내판 보수정비	116
2. 안내판 보수정비 예시	120
3. 안내문안 정보 등록(DB 입력)	123

부 록

문화유산 해설과 전달에 관한 이코모스 현장	128
-------------------------------	-----

정의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 업무의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다룬다.

목적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유산 관리단체에서 전국의 국가유산 안내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용 지침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의 원칙적 측면을 다루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산 안내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명시된 사항들은 제반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가유산 안내판을 개선할 때 적용한다. 지정된 국가유산 외에도 문화유산 구역 내에서 국가유산 안내판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타 안내판 및 사인물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의 표준적 절차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고려사항 등을 적용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며, 모든 사항은 문안작성, 디자인,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개요

1. 개념	010
2. 목적	011
3. 안내판 정비과정	012
4. 안내판 설치 점검표	013

1. 개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유산 종류 |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시도무형유산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유산 안내판은 관람객에게 공공언어로 국가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시설물이다. 국가유산 안내판의 종류에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다. 해설안내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산 전체 영역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종합안내판, 국가유산 전체 영역 중 권역을 설명하는 권역안내판, 개별 국가유산 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별안내판으로 구분된다.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목적

전문용어와 한자
사용으로 어려운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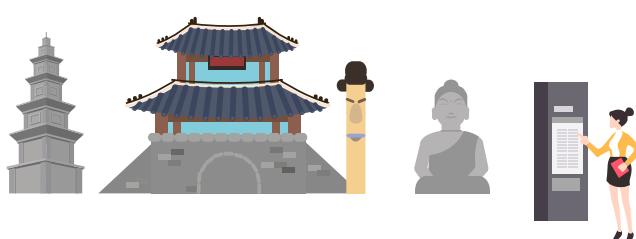
훼손되어 문안을
읽기 힘든
안내판

오타와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안내판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국가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안내판

알고 싶은
정보를 담은
안내판



3. 안내판 정비과정

1 현지 조사를 통한 안내판 현황 분석

- 종류(형태, 크기, 재질 등), 설치 수량, 설치 위치, 안내문의 분량, 훼손 여부, 문안의 내용 및 안내 기능이 충실한지 등을 파악한다.



2 안내문 작성

- 안내문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유산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교사, 학생,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꾸려 안내문이 어려운지 검토받는다.
- 최종 국문 안내문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는다.



3 안내판 제작과 설치

- 국가유산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안내판 주변 정비도 동시에 진행 한다.



4 안내판 사후 관리

- 국가유산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한다.
- 안내문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한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 관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4. 안내판 설치 점검표

구분	점검 내용	해당여부	적용 여부
배치	국가유산과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국가유산과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규모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형태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인각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재료	국가유산과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색채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자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 X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I

안내판 정비 전

1. 안내판 문안 작성

- | | |
|---------------------------|-----|
| 1)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 016 |
| 2) 안내문안 작성 원칙 | 030 |
| 3) 안내문안 작성 방법 및 사례 | 038 |
| 4) 안내문안 작성 사례 | 044 |
| 5) 안내문안 영문 작성 가이드라인 | 052 |
-

1)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 국가유산 명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누리집)에 게재된 것을 활용한다. 문화유산 관련 용어는 국립국어연구원이 2003년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 합본 중 문화재용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2010년에 발행된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일본어, 중국어), 2019 문화재 명명 요소 목록(제28조 관련) 및 2019년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을 참고한다.

① 안내문안은 객관적 사실을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국가유산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첨가할 수 있다.

* ②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③ 안내문안은 관람객이 해당 국가유산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부합하도록 한다.

* ④ 안내문안 본문은 2개 언어(국어/영어)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일부 내용 및 용어에 한해 한자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정한다. 첫 문장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을 쓴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⑥ 첫 문장은 해당 국가유산을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국가유산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 ⑦ 해당 국가유산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전형적인 신라 계통의 3층탑으로 높이는 약 3미터이다.

〈길상탑〉 안내판 문안 예시

- ⑧ 안내문안 내에서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활용한다.

조선 시대 중기의 목판인쇄 문화와 불교학 및 서지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서지학(書誌學) : 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고봉화상선요〉 안내판 문안 예시

▶ 제목

①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국가유산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단, 지정 명칭에 지명이 선행하거나 지정 범위 등이 부가된 경우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서울 비암사 극락보전(O) → 비암사 극락보전(O) 구례 화엄사 일원(O) → 화엄사 (O)

서울 숭례문 (O) → 숭례문 (O) 청송 주암산 주암계곡일원(O) → 주암산 주암계곡(O)

②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의 변동이 수반되는 우리말의 경우에는 변환없이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예) 경자바위 → 경자바위 敬字巴위 (O) 각황전 앞 석등 → 覺皇殿 앞 石燈 (O)

경자바위 → 경자바위 敬字巖 (X) 각황전 앞 석등 → 覺皇殿 前 石燈 (X)

칠곡 가산바위 漆谷 架巖바위

〈칠곡 가산바위〉 안내판 사례

각황전 앞 석등 | 覺皇展 앞 石燈

〈화엄사〉 안내판 사례

③ 접속조사(‘와’, ‘과’ 등)나 접속부사(‘그리고’ 등)로 이어질 때 한자 표기는 쉼표(.)로 한다. 쉼표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가운뎃점(·)은 쓰지 않는다.

경자바위와 취한대 → 敬字바위, 翠寒臺 (O)

敬字바위 翠寒臺 (X) | 敬字바위·翠寒臺 (X)

④ 국가유산 안내판의 제목 중 영어는 국문과 한자에 이어 표기하며 같은 행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 할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영문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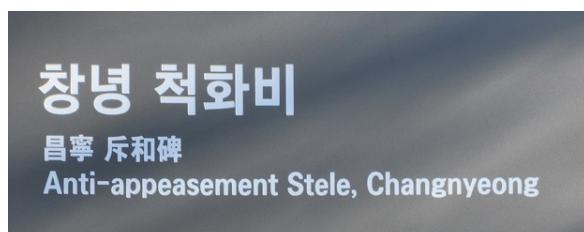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X)

삼층석탑 →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X)



〈창녕 척화비〉 안내판 사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안내판 사례

⑤ 권역(영역)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영역)의 이름으로 한다.

예) 경복궁 : 근정문, 근정전 권역 → 근정전 일원

화엄사 : 동 · 서오층석탑 및 대웅전, 각황전 일원 → 중심영역

소수서원 : 경렴정, 지도문, 선생단 일원 → 진입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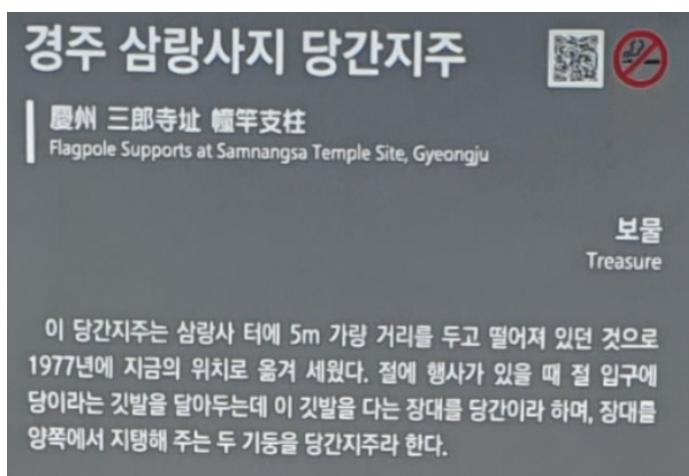
⑥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국가유산 지정 명칭으로 하되, 별도로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이 세워진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한다.

예)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 각황전 앞 석등 해인사 원경왕사비 → 원경왕사비

⑦ 유적지 내 비지정 국가유산 및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에 따르며, 유적지 명칭 등은 생략한다.

예) 화엄사 돌향아리 → 돌향아리 법주사 당간 및 당간지주 → 당간 및 당간지주

⑧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가 있는 경우 본문의 첫머리에 이를 풀이하여 설명한다.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안내판 사례

» 국문, 영문의 표기

- * ① 안내문안 본문은 2개 언어(국어/영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 및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② 안내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 ③ 안내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 내에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관계,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절은 명종 임금께서 세우신 것이다. (X) → 이 절은 명종 임금이 세운 것이다. (O)
 스님께서는 1126년에 태어나셨다. (X) → 스님은 1126년에 태어났다. (O)

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_{退溪 李滉}은 명종임금께 건의하여 소수서원이라는 친필 현판과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_[사액] 받았다.

〈소수서원〉 안내판 사례

- ④ 안내문안의 국어, 영어는 지정 서체로 통일되게 표기하며, 별도로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Bold) 표기할 수는 없다.

예)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X)

Sosuseowon was **the first Confucian Academy** as well the first
 royally-sponsored academy in Korea (X)

- ⑤ 본문에 직접 풀어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부연 설명 부분의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별도의 괄호()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목조칠존상(1703년)과 삼세후불도(1860년), 영산회괘불이 모셔져 있다. (X)

목조칠존상^{1703년}과 삼세후불도^{1860년}, 영산회괘불이 모셔져 있다. (O)

강진으로 유배된 다산은 사의재, 고성사 보은산방 등을 거쳐 1808년에 외가(해남 윤씨)에서 마련해준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X)

강진으로 유배된 다산은 사의재, 고성사 보은산방 등을 거쳐 1808년에 외가^{해남 윤씨}에서 마련해준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O)

- ⑥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별도로 외래어의 어원을 밝히지 않는다. 이는 영어 문안에만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파고다(Pagoda) 공원 (X) → 파고다 공원 (O)

- ⑦ 우리말 가운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Hanbok* is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O)

» 한자의 표기

- ① 안내판 제목과 인물, 지명, 국가유산 명칭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한자는 쓰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라면 작성자 판단에 따라 한자를 넣어도 된다.

네모난 출입구(出入口)가 있어 내부(内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X)

동서남북의 사대문에는 각각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의 글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는데 (O)

② 안내문 본문에서 한자는 한글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혹은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한다. 한자는 한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만 적는다. 제목과 같은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다.

신라시대의 당간지주(幢竿支柱)다. ……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幢竿支柱)라 한다. (X)
둥근 갓의 불상은 남상^{男像},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女像}이라 한다. (O)

부여 나성(扶餘 羅城)

나성(羅城)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지키는 외곽성으로…… (X)

③ 국가유산과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의 이름에만 한자를 넣는다. 인물의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는 쓰지 않는다.

1615년(광해군 7) 이순신의 부하였던 유형^{柳珩}이 황해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그곳에서 보내온 가장 좋은 석질의 빗돌로 세웠다. (O) ※ 유적과 관련 있는 인물

신태식(1864.11.12.~1932.01.15.) 선생의 생가지이다. (X)

④ 인물의 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호가 이름과 함께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이름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해도 된다. 한자는 호 뒤에 표기하며, 호와 이름을 모두 표기할 때는 이름 뒤에 한꺼번에 넣는다.

청백리의 귀감인 방촌 황희(厖村 黃喜) 선생의 유적지이다. (O)
이곳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白帆) 김구(金九)의 숙소이자 (X)

⑤ 한문을 풀어 줄 때는 한자를 넣어도 된다. 단, 제목과 중복되면 한자 표기를 생략한다.

여수 진남관(麗水 鎮南館)

진남(鎮南)은 ‘남쪽 왜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X)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서울 莊義寺址 幢竿支柱)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幢竿支柱)라 한다. (X)

» 숫자의 표기

- ①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국가유산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적는다.

1972년 (O)

1590년대 (O)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O)

서울 원각사지 10층석탑 (X)

십이지신, 사천왕 (O)

12자신, 4천왕 (X)

- ② 수목 안내판에서 수령은 해마다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한다. 다만,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해도 된다.

수령은 약 400년 정도로 추정된다. (O)

이 나무는 나이가 650년으로…… (X)

- ③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 이하의 숫자 앞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1919년 3월 1일 (O)

1919년 03월 01일 (X)

1919. 3. 1. (X)

1919. 03. 01. (X)

» 연대 표기

- ① 연도를 확실히 알면 절대 연도로 쓰고,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면 시대로 표기한다.

삼전도는 1950년대까지 나룻배가 다녔으나 1970년대 이후 한강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O)

17세기 세 나라의 언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O)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건조물로 (O)

② 대략의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인다.

이 문은 광해군 12년(1620) 무렵에 세워진 것으로 경덕궁의 정문이다. (O)

③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고 같은 왕조 연대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바뀐 경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해도 된다.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 (O)	조선 세종 16년(1434) (O)
↑ ↑ ↓ ↑	
왕조 연대 왕명 or 국호 연호	서기

- 세종 8년인 1426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세종 17년인 1435년 대과에 급제한 후(X)
 세종 8년인 1426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1435년 대과에 급제한 후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993년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순종 때인 1048년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1048년 (O)

④ 왕의 재위 연호는 정확한 연도는 원칙적으로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나,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해도 되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선덕여왕_(632~647 재위) (O) 선덕 여왕_{632~647 재위} (O) 선덕여왕(632~647) (X)

⑤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원칙적으로는 적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산과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은 적어도 된다. 주변 인물은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적지 않는다. 생몰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혹은 괄호 없이 적는다. 한자와 함께 적을 때는 한자 다음에 적는다.

원효대사_(元曉大師, 617~686) (O) 원효대사_{元曉大師, 617~686} (O)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 (X)

» 도량형의 표기

①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르고, 단위는 기호로 적는다.

높이 5자, 구경 3치 5푼, 중량 733근 (X)

삼층석탑은 높이가 13.4미터로 장대하며, (X)

높이 2.4m, 둘레 2.6m로 현재 전해지는 입석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O)

② 규모를 설명할 때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한다.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가로 60cm, 세로 100cm, 깊이 40c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O)

받침돌 길이 330cm, 너비 249cm, 높이 88cm, 머릿돌 높이 110cm (O)

③ 복문, 중문 등 한 문장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통일한다.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적는다.

느티나무는 높이 24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8.1m, 밑동둘레 10.1m이다. (O)

가로 8.2m, 세로 7m, 길이 0.35~0.6m (O)

축의 길이가 6.40m, 너비 5.23m, 두께 1.34m에 전체 높이 2.45m이고 덮개돌의 무게는 약 53톤이다. (X)

땅에서 1.4m 부위에 가로 60cm, 세로 100cm, 깊이 40cm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X)

해안단구의 길이는 약 4km, 너비는 약 1km이며, 높이는 해발고도 75~85m이다. (X)

④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적는다.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가로 69.2cm, 세로 23cm의 크기이다. (O)

» 고어

①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쓰고, 단독으로 있으면 현대어로 바꾼다.

왕오천축국전 (O)

사오정 일행이 인도에서 불법(佛法)을 구해 오는 과정을 그려 새겼다. (O)

» 방향

- ① 방향은 국가유산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다. 다만, 안내판이 국가유산을 직접 가리지 않도록 관람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 방향은 현재 안내판이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쓴다.

정면 중앙의 종탑 윗부분은 둠형으로 되어 있다. (O)

건물 앞쪽 출입구에 설치된 덮지붕을 지지하는 브이V자 모양의 기둥이 독특하다. (O)

- ② 동서남북의 방위는 날씨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쓰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 학설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써도 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묘향산을 상악으로,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으로, 중앙의 계룡산을 중악으로 하여 단을 쌓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O)

대웅전 건물이 향하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O)

- ③ 국가유산이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 국가유산을 구분해 적는 방법을 권한다.



» 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운영

- ① 기본방향 : 자문 사안별로 적합한 비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② 구성단위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
- ③ 구성인원 : 분야별 자문위원 3~10명 내외
- ④ 운영방식
 - (1) 국가유산안내판 정비 시 국민들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의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2)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 광역에서 통합·운영
 - (3)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운영
 - (4) 문안이나 디자인 변경 없이 기존 안내판 단순 교체 등의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성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식 운영 가능
 - (5) 지자체별로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단이나 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 사안별 비상설 자문단 활용으로 회의 시마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운영 가능

자문단 구성(안)

구분		참여 분야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국가유산,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인, 문화유산 해설사,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
감수	국문	국립국어원, 전국의 국어문화원
	영문	한국학중앙연구원

⑤ 주요 기능 및 역할

- (1) 안내문안 및 외국어 번역의 감수 등에 관한 사항
 - (2) 안내판 개선에 대한 자문, 컨설팅, 의견 개진 등
 - (3) 안내판과 디자인,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사항 등
- * 기획, 디자인 개발, 문안 마련, 감수, 제작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

지역주민 참여방법 및 검토사항

참여방법	안내문안 작성 시 직접 참여하거나 기 작성된 안내문안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안의 난이도와 흥미성 반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안에 지나치게 많은 국가유산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 국가유산이 만들어진 배경, 용도나 유래 등 국가유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는지? - 그림이나 이미지가 국가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2) 안내문안 작성 원칙

①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 (1)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 (2)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3) 형태나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 (4)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 (5) 국가유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

강동화암주상절리는 분출한 마그마가 식어 굳어짐에 따라 부피가 줄어들어 생기는 다각형 기둥 모양의 금을 말한다.

강동화암주상절리는 신생대 제3기의 화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동해안 용암 주상절리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대부분의 주상절리들이 수직으로 발달한 것과 달리 이곳의 주상절리는 수평, 수직, 경사진 형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주상절리에서 관찰되는 단면 모양은 사각형에서부터 칠각형까지 다양하며, 이 중 육각형이 가장 우세하다. 횡단면이 꽃무늬 모양을 하고 있어 이 마을을 ‘화암’이라고 부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주상절리의 뜻을 풀이함



• 연기 척화비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고종 8년(1871)에 세운 비석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을 배격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당시 전국의 중요한 곳에 척화비를 세웠다.

연기 척화비는 연기향교 서쪽 담장을 따라 세워진 비석들 사이에 있으며, 너비 80cm, 폭 53cm크기의 비석 받침에 세워져 있다.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뜻의 12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에 새겨진 한자를 쉽게 풀이하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



• 성암동 패총

패총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나 굴 등 패류의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만들어진 유적이다. 패총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살던 집터나 토기, 석기 등의 유물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의 문화, 자연환경, 사람들의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다.

성암동 패총은 1999년에 발견되어 200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외황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가에서 밀려들어 온 고운 흙과 강 언덕에서 침식된 자갈이 차례로 쌓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신석기인들의 생활 유물인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돌도끼, 그물 추 등이 있다. 또한 소라, 피뿔고동, 참굴, 떡조개, 돌고래 뼈 등이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알 수 있게 한다.

😊 패총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이해를 도움



• 관성묘

관성묘는 관성제군(關聖帝君), 즉 관우의 혼을 모셔 놓은 신당이다.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일종의 장군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충정을 다 하다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나 큰 업적을 남긴 대장군을 섬기는 민간신앙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우를 신으로 모신 것은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관우 장군신의 도움으로 왜구를 물리쳤다고 믿은 명나라 장수가 관우의 혼을 모시는 신당을 세운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관성묘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 풍판이 없어서 5량식 구조의 짜임이 잘 드러난다.

관성묘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건물 안의 정면에는 관우상과 부인상이 걸려 있고, 좌측과 우측 벽에는 문인상과 무인상 그림이 걸려 있다. 이 묘에서는 일 년에 네 번, 즉 음력 정월 초하루, 5월 13일, 6월 24일, 10월 19일에 제사를 지낸다.

😊 관성묘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쉽게 전달하고자 함

②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 (1)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2)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 경주 서출지

서출지는 경주 남산 기슭 남산 마을 동편에 있는 삼국시대 연못으로 이곳에서 글이 적힌 봉투가 나와 서출지라 한다.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소지왕 10년(488)에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하였는데 쥐가 나타나 까마귀를 따라가라 하였다. 왕이 병사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 뜻에 이르렀을 때 한 늙은이가 나타나 봉투를 주었다고 한다. 봉투에는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열어 보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신하가 봉투를 왕에게 바치니 왕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여 열어보지 않으려 하였으나, 일관^{*}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임금입니다"고 아뢰며 봉투를 열어볼 것을 청하였다. 왕이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射琴匣(거문고 상자를 쓰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에 왕이 궁에 들어가 활로 거문고 갑을 쏘았는데 그 안에 내전을 드나들던 승려와 궁주^{**}가 숨어 있었다. 못에서 글이 나와 계략을 막았으므로 그 못을 서출지라고 불렸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에 찰밥을 준비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오기일烏忌日이라는 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연못 서쪽에는 조선 현종 5년(1664) 임직任勸, 1612~1672이 지은 이요당二樂堂이라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

*일관(日官) : 하늘의 변이(變異)로 나라나 인간의 길흉(吉凶)을 점치던 관원

**궁주(宮主) : 왕비보다 격이 낮은 왕의 첨

😊 이야기로 시작해 안내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각 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설명



• 처용암

처용암은 울산만으로 흘러가는 외황강에 있는 바위섬이다. 황성동 세죽마을 해변에서 서쪽으로 약 150m 떨어져 있다. 처용암이라는 이름은 '처용의 바위'라는 뜻으로, 이 이름과 관련한 설화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신라 현강왕(재위 875~886)이 개운포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가려 앞을 볼 수 없었다. 천문 관측과 점성을 담당하던 관원이 "동해에 사는 용이 일으킨 일이나 좋은 일로 달래어야 한다"고 했고, 왕은 근처에 좋은 땅을 골라 용을 위한 절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구름과 안개가 걷히며 일곱 아들을 거느린 동해 용이 나타났다. 동해 용은 자신을 위해 절을 짓게 한 왕의 뜻을 기리며 춤과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때 올라온 용의 아들 중 한 명인 처용은 왕을 따라 도성(지금의 경주)으로 가서 왕의 정사를 돋고 관직도 받았다. 처용암은 처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곳이라고 한다.

😊 설화를 자세히 풀어서 흥미로우며 문맥의 흐름에 매끄럽게 배치함



• 성주 백세각

이 가옥은 조선전기 사현부 집의* 등을 지냈던 송희규(宋希奎, 1494~1558)가 자은 것으로 조선 명종 6년(1551)에 짓기 시작하여 다음해 완공한 건물이다. “비가 오는 날 자정에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기 때문에 종손이 아니면 무서워서 잠을 못잔다”는 전설이 전한다.

건물은 백세각과 사당, 관리사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백세각의 평면은 ‘ㅁ’자 모양이며,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 싸리로 엮은 점과 대패를 쓰지 않고 손도끼(자귀)로만 다듬어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세각은 독립운동과도 관련이 깊은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서, 경북 유림단 파리장서 사건**의 의논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유학자인 공산 송준필은 이곳에서 유림의 결기를 독려하는 통고 국내문(通告國內文)을 작성하고, 제자들과 함께 1919년 4월 2일 성주 장날 만세 시위에 나누어 줄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한다.

* 사현부 집의: 조선시대 사현부는 언론 활동, 풍속 교정, 관리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 감찰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집의는 사현부 소속의 종3품 관직 명칭이다.

** 경북 유림단 파리장서 사건 : 1919년 송준필, 김창숙 등이 중심이 되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청원서를 보내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 설화나 전설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흥미를 유발함



• 예천향교

예천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 예천읍 현산에 처음 건립되었고, 태종 18년(1418) 군수 김겸(金謙)이 현재 위치로 옮겨지었다. 이후 효종 7년(1656), 효종 9년(1658) 등 여러 차례 다시 고쳐지었다. 오늘날 대창중·고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 세워진 당시에는 풍영루*, 전곡청,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이층 문루 등 9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제사공간인 대성전과 교육공간인 명륜당,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인 주사, 향교의 대문격인 외삼문과 대성전 앞의 내삼문 등이 남아 있다. 2005년에 동무와 서무에 해당되는 일신재(日新齋)와 직방재(直方齋)를 복원하였는데 일신재에는 제복(官服)을 직방재에는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있다.

외삼문으로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면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인 명륜당이 있고, 명륜당 뒤쪽에 위치한 내삼문으로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맷배지붕 건물인 대성전이 별도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25위의 성현을 모신 곳으로, 지금까지도 매년 봄·가을에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 풍영루(諷詠樓): 대창중·고등학교의 음악실과 미술실이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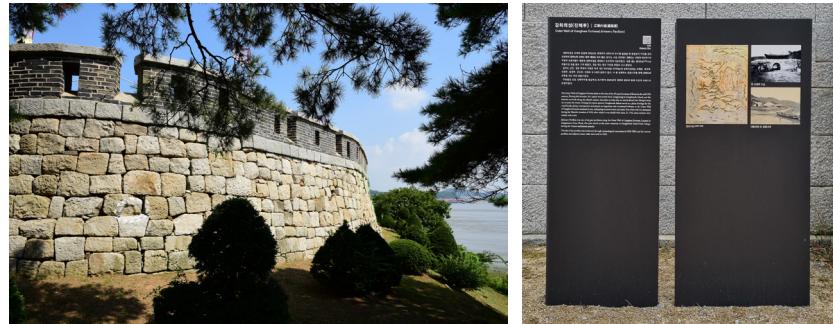
** 석전제(釋奠祭): 공자를 모신 사당에서 선현에게 지내는 제사

😊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전달

③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

(1)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단,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 배열에 어울리도록 한다.

- 강화외성(진해루)



강화외성은 고려가 몽골의 침입으로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 때 몽골군이 바다를 건너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화도 동쪽 해안을 따라 쌓은 성이다. 조선 시대에도 강화도는 국왕의 피난처이자 국방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강화외성을 개축하고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숙종 때는 병자호란(1636)으로 허물어진 성을 돌로 고쳐 쌓았고, 영조 때는 일부 구간을 벽돌로 다시 쌓았다.

문루는 궁문,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을 의미하는데 강화외성에는 조해루, 복파루, 진해루, 참경루, 공조루, 안해루 등 6개의 문루가 있다. 이 중 진해루는 갑곶나루를 통해 강화도와 내륙을 잇는 주된 관문이었다.

주춧돌만 남은 진해루터를 발굴하고 조사하여 2020년에 성곽의 일부와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국가유산의 옛모습과 고지도 사진을 활용하여 이해를 높임



- 위라리 칠층석탑



위라리 칠층석탑은 1970년 발굴 당시 4층부터 7층까지의 몸돌은 없고 자붕돌만 남아 있었다.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유산 지정된 후 없던 몸돌을 보충하여 1975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처음 이 석탑이 제작되었을 때는 2층 기단 위에 7개의 몸돌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기단부가 없고 사각형의 판석인 바닥돌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돌의 윗부분 바깥 네 면에 흙이 파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쪽에는 기단이 세워졌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몸돌과 지붕돌의 형태는 같으나 1층 몸돌이 다른 층에 비해 4배 정도 높다. 또한 너비가 올라갈수록 적절하게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 탑의 상륜부 머리장식은 없고 둥근 돌 하나만 남아 있다.

탑의 총 높이는 바닥돌을 제외하고 3.32m이며, 석탑을 구성한 각 부재의 구성과 양식, 3단의 지붕돌 받침과 지붕돌의 육중한 느낌 등으로 보아 고려 때 개성 지역에서 유행한 일반적인 석탑 유형의 하나로 추정된다.

使命感의 구조와 복원 및 구성을 파악할 수 있음

④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 (1)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간략하고 쉽게 적는다.
- (2) 만들어진 배경과 기능이나 용도를 설명한다.
- (3) 관련 인물과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다.

•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외항강 하구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좌수영성은 1459년부터 1544년까지 경상좌수영으로 사용되었다. 성벽의 모양은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고, 남아있는 성벽의 둘레는 약 1,264m이다.

조선시대에는 군사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경상도를 낙동강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었다. 경상좌수영은 낙동강 동쪽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는 총책을 맡고 있었다.

경상좌수영은 1413년 지금의 부산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 지역은 일본인들이 자주 오고 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1459년 개운포로 수영이 옮겨졌다. 1544년 경상좌수영은 다시 부산 해운포로 옮겨갔으나, 임진왜란 때에도 이 성에서 세 차례 정도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개운포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및 역사적 가치를 잘 나 탐낼

• **서악서원**



이 서원은 조선 명종 16년¹⁵⁶¹에 경주부윤 이정^{李楨}이 김유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에서 비롯하였다. 2년 후에 설종과 최치원의 위패를 함께 모시면서 서악정사^{西岳精舍}라는 편액을 달았다. 편액의 글씨는 명필로 알려진 원진해^{元振海}가 썼다. 임진왜란 때 건물이 모두 불타 없어졌고, 이후에 다시 세웠다. 인조 1년(1623)에 서악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건물의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앞쪽에 공부하는 공간인 시습당^{時習堂}이 있고, 뒤쪽에 사당이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헐리지 않고 남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경주에서는 옥산서원^{玉山書院}과 서악서원만 남았을 만큼 유서 깊은 서원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을 하고 있다. 인성 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서악서원은 국가유산 활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서악서원이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잘 설명함

⑤ 역사적 사실, 문법, 맞춤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1)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ultural Heritage Search' section of the portal. A search result for '종묘 (宗廟)' (Jongmyo Shrine) is displayed. The page includes a thumbnail image of the shrine, its name,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its status (Royal Shrine), location (Seoul Jongno-gu, Jongno 157), and construction date (139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cha.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종묘 (宗廟)' entry in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It includes a map of Seoul highlighting the location of Jongno-gu,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hrine, and various filters for search results like 'Category' (Category 1), 'Period' (1394), and 'Location' (Seoul Jongno-gu).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2)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3)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내문이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읽히는지 검토받는다.

(4) 다음 예시문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한 친일행위자의 친일행적이 국민에 공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예시문

(국가유산 안내 내용). 한편 □□□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된 바 있다.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2022년 11월 현재 1006명) 명단은 별도 확인 필요

3) 안내문안 작성 방법 및 사례

① 문안작성방법

- 안내판의 안내문은 제목과 국문/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한다.

구성 요소	세부 내용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지정유형 영문 번역
내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의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 풀이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① 제목 부분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국가유산 지정명칭을 찾아 쓴다. 띄어쓰기를 해도 되며, 지명이 앞에 나오거나 지정 범위가 뒤에 붙을 때 둘 다 생략해도 된다.
- 국문보다 크지 않게 한자를 꼭 병기한다. 한자는 같은 줄에 쓰거나 다음 줄에 쓴다. 단, 글자 크기는 한자가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 한자는 소릿값이 같을 때만 한자로 바꾼다. 소릿값이 바뀔 때는 우리말을 그대로 쓴다.
- 접속조사('와', '과' 등)나 접속부사('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등)로 이어질 때 한자 표기는 쉼표(,)로 한다. 가운뎃점(·)은 쓰지 않는다.
-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본문 처음에 풀이한다.

징효국사 부도 澄曉國師 浮屠

부도란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일종의 묘탑(墓塔)이다.

② 지정유형

- 지정유형은 한글로만 적고 한자 표기는 하지 않으며 제목보다 크지 않게 한다.

경복궁 사적

慶福宮 Gyeongbokgung Palace

③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이 국가유산이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등 국가유산이 생겨난 배경과 발자취를 소개한다. 문화재청 누리집 ‘지정 보고서’와 ‘문화유산 이야기 마당’에서 확인한다.

④ 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

- 역사 자료로서의 학문적 가치와 희소성을 설명한다. 국내외의 유사한 시대, 인물과 비교해 가치와 우수성을 드러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보도 함께 표시한다.

⑤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국가유산에 관한 설화, 전설, 민담을 소개한다.

⑥ 주요 관람 포인트

- 건물, 그림, 조각, 탑 등의 중요하거나 독특한 요소를 설명하여 감상법을 안내한다.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 꼭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를 써도 된다. 나무의 연령이나 크기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 가급적 본문 기술 순서를 따르되, 내용이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순서는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해도 된다.

② 안내판 종류별 사례

(1) 종합안내판 사례

-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해당 국가유산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국가유산, 관람 정보 등이 담긴 안내판 2종으로 구성
- 안내문안은 제목(국가유산명)과 제목에 대한 한자, 국/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

지정명칭 ①
경복궁



		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	
유래	③	조선왕조 개국 4년째인 1395년 ^{태조4} 에 처음으로 세운 으뜸 궁궐이다.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뜻으로 경복궁 ^{景福宮} 이라 이름 지었다. ⁴ 북악산을 주산으로, 목멱산(지금의 남산)을 안산으로 삼아 풍수지리적인 터잡기에서도 한양의 중심을 차지했다. 정문인 광화문 남쪽으로 관청가인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로)를 조성하고, 그 연장선 위에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등 주요한 궁궐건물들을 일렬로 놓아, 왕조국가인 조선의 상징 축으로 삼았다.	④
연혁	③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진 후, 1610년 제 2의 궁궐인 창덕궁은 재건하였으나 경복궁은 270년 이상 폐허로 남게 되었다. 1867년 고종 ⁴ 에 비로소 왕조 중흥의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691,921㎡의 광활한 대지에 약 500여동의	
주요 관람 포인트	⑥	건물들을 건립하였으며 조선 왕실의 전통과 현실을 조화시켜 전체적으로는 규칙적 배치를 따르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가미하였다. 중건된 경복궁은 정무공간을 중심부에 두고, 좌우 뒤편으로 왕족의 생활공간, 그리고 곳곳에 정원시설들이 배치되어 하나의 작은 도시를 이루었다.	
연혁	③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어 중심부의 일부 건물들만 남았고, 광화문을 비롯한 외전 일부를 헐어내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의 정면을 막기도 했다. 1990년부터 복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 흥례문과 행각을 복원했고, 왕과 왕비의 침전 및 왕세자가 기거한 동궁을 비롯하여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도 다시 복원하여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회복중이다.	

(2) 권역안내판 사례

-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국가유산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단, 통합 1종의 안내판 제작 시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삽입)
- 안내문안은 제목(권역 명칭)과 제목에 대한 한자 및 국/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

**지정명칭 ①
사정전 일원**



유래 ③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더불어 일상 업무를 보던 곳으로, 아침의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가 정책 토론 등 각종 회의가 매일같이 열렸다. 1867년 다시 지어진 사정전은 공식 업무공간으로 마루만 깔려 있지만, 좌우의 만춘전^{萬春殿}과 천주전^{千秋殿}은 비공식 업무공간으로서 온돌 방을 두어 왕과 신하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사정전 앞의 행각에 천지현황^{天地玄黃} 등 천자문 순서로 이름을 붙인 창고가 있는데 이곳에는 왕실의 물품들을 저장하였다.

**역사적·
국가유산적 가치 ④**

(3) 개별안내판 사례

- 개별안내판의 안내문안은 제목(국가유산명)과 제목에 대한 한자, 각 국가유산의 규모 및 국/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

**지정명칭 ①
운암공 부조묘**



유래

③ 이곳은 조선 시대 무신인 운암 최봉천^{耘庵 崔奉天}, 1564~1597을 기리기 위해 순조 21년 1821에 지은 사당이다. 부조묘는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위패를 땅속에 묻지 않고 영원히 모시기 위해 세운 사당을 가리킨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기와집으로 경주 최씨 강정파 종증에서 관리하고 있다.

역사적·
국가유산적 가치

④ 최봉천은 임진왜란 때 조카 최진립^{崔震立}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영천, 울산, 경주성을 되찾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경상좌도 수군우후로 승진한 후 정유재란 때 영천의 창암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선조 38년 1605에 그를 공신^{功臣}으로 봉하고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추증* 하여 부조묘를 세우게 하였다.

* 追贈(추증) :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

**지정명칭 ①
아미산 굴뚝**



유래 ③ 왕비의 침전 뒤쪽에 인공으로 계단식 정원을 만들고, 가운데 단에 육각형 굴뚝 4개를 나란히 세웠다. 흙을 구워 만든 연한 주황색 적벽돌 몸체 위에 기와지붕을 얹고 그 위에 4개씩의 작은 굴뚝을 모았다.

주요 관람 포인트 ⑥ 학, 사슴,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돌 등 십장생은 장수를 뜻한다. 정원의 아랫단에는 돌로 만든 그릇인 돌함지 와 화분 등이 놓였는데, 함월지_{涵月地}는 달이 담긴 호수를, 낙하담_{落霞潭}은 노을이 비친 연못을 의미한다.

계단식 정원은 산을, 돌함지 따위는 호수를, 굴뚝의 무늬는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상징하여 아미산 정원은 신선이 사는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

4) 안내문안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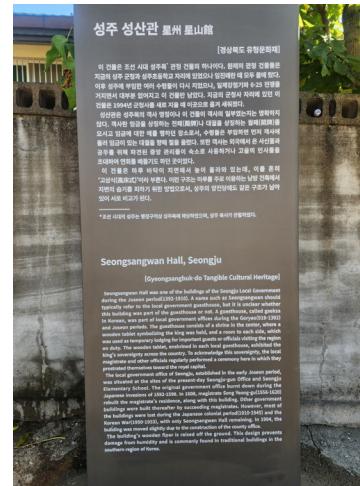
성주 성산관

이 건물은 조선 시대 성주목* 관청 건물의 하나이다. 원래의 관청 건물들은 지금의 성주 군청과 성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①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탔다. 이후 성주에 부임한 여러 수령들이 다사지었으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없어지고 이 건물만 남았다. 지금의 군청사 자리에 있던 이 건물은 1994년 군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이곳으로 옮겨 세워졌다.

성산관은 성주목의 객사 명칭이나 이 건물이 객사의 일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②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나 대궐을 상징하는 결파(闕牌)를 모시고 임금에 대한 예를 행하던 장소로서, 수령들은 부임하면서 먼저 객사에 들러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또한 객사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과 공무를 위해 파견된 중앙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고을의 이사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곳이었다.

이 건물은 마루 바닥이 지면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를 흔히
‘고상식(高床式)’이라 부른다. ③ 이런 구조는 마루를 주로 이용하는
남방 건축에서 지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주의 양진
당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어 서로 비교가 된다.



- ① 건물의 소실과 재건축의 이유를 밝힘
 - ② 객사의 정의와 역할을 쉽게 풀이한 설명을 덧붙임
 - ③ 건축학적 특징을 쉬운 용어로 설명
 - ④ 각주 사용으로 옛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 보완

④ *조선시대의 성주는 행정구역상 성주목에 해당하였으며, 성주 목사가 관할하였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양남 주상절리군은 신생대 제 3기의 애오세^{*5,400만 년 전}에서 마이오세^{*460만 년 전} 사이에 경주와 울산 해안 지역의 활발했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바위의 기둥 모양의 틈이다. ① 주상절리는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을 때 수축 작용에 의해 수직의 돌기둥 모양으로 갈라져서 생긴 틈을 말한다.

이곳 해변의 1.7km에 걸쳐 10m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들이 분포하는데, ② 기둥의 형태가 주름치마, 부채꼴, 꽃봉오리 모양으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절리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발달하는 데 반해 이곳은 수평 방향의 절리가 흔하고 부채꼴 모양의 절리도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한 곳에 세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여 서로 만나는 것도 드문 경우이다.

③ 주상절리군 주변에는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데크길 등 주상절리가 보이는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파도소리길이 조성되어 있다.

④ *애오세 : 자질 시대의 신생대 제3기를 다섯으로 나눈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대.

기후는 온난·습윤하였고 산림이 우거져서 석탄층이 많이 퇴적하였다.

**마이오세 : 신생대 제3기를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 네 번째로 오래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2,400만 년 전부터 520만 년 전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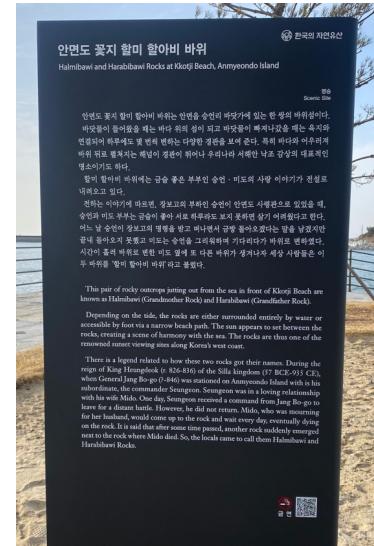
- ① 주상절리의 개념을 밝혀 국가유산 이해를 도움
- ② 형태를 친숙한 형태로 묘사
- ③ 국가유산 주변 코스도 함께 소개해 관람 포인트를 제안
- ④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 ⑤ 도면을 사용함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는 안면읍 승언리 바닷가에 있는 한 쌍의 바위섬이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 위의 섬이 되고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바다와 어우러져 바위 뒤로 펼쳐지는 해넘이 경관이 뛰어나 우리나라 서해안 낙조 감상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할미 할아비 바위에는 금슬 좋은 부부인 승인·미도의 사랑 이야기는 민속적 가치가 높다.

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보고가 안면도를 기지로 삼고 주둔하였을 때 승언이라는 부하가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당시 승언과 미도 부부는 금슬이 좋아 서로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살기 어려웠다고 한다. 어느 날 승언이 장보고의 명령을 받고 바다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는 말을 낙경지방 굴내 풀이오자 못하고 미도는 승언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다가 바위로 변하였다. 시간이 흘러 바위로 변한 미도 절에 또 다른 바위가 생겨나자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바위를 ‘할미 할아비 바위’라고 불렀다.



① 전승 설화를 자세히 풀어서 흥미로움



서생포왜성

서생포왜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조선 선조 26년¹⁵⁹³ 5월부터 일본장수 가토 기요마사 加藤清正가 지휘하여 돌로 쌓은 16세기 말의 일본식 평산성⁵이다. 공간 배치 상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내성, 중성, 외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성벽 밖에는 방어 시설인 호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① 내성은 회야강으로 가는 포구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곳에는 왜군의 지휘소로 사용된 천수각 터가 남아 있다. 당시 천수각은 약 5m 높이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성은 내성의 동쪽 아래편에 있으며 중성 동쪽 아래에 있는 외성은 평지를 포함하여 넓고 길게 만들어졌다.

성곽의 전체 면적은 호를 포함하여 15,180m²이다. 호를 제외한 외곽의 길이는 약 2,500m이며, 평면상의 직선거리는 동서 방향으로 약 870m, 남북 방향으로 약 370m이다. 성벽은 수직으로 쌓은 조선의 성벽과 달리, 60도 정도 기울여 경사지게 쌓았고 방어에 유리하도록 성벽을 부분적으로 꺾거나 덧붙여 복잡하게 만들었다. ② 내성은 외면과 내면을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공법을 사용했으나 중성과 외성은 성벽의 외면만 돌로 쌓고 그 안쪽은 작은 돌과 흙으로 채운 편축식 공법을 사용하였다.

선조 27년¹⁵⁹⁴부터 시작된 사명대사와 가토 기요마사의 평화 교섭이 이곳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다. 선조 31년¹⁵⁹⁸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명나라 마귀 장군이 이곳을 차지하였다. 선조 32년¹⁵⁹⁹에는 왜적과 싸운 충신을 모시는 창표당이 이곳에 세워졌다. 정유재란 이후부터 18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경상 좌수영 소속 수군이 서생포 진성으로 사용했는데 이때는 전체 왜성 중 외성만 주로 사용했다. ③ 「울산 서생진지도¹⁸⁷²」를 보면 성내에는 객사와 동헌 등의 관아와 시장이 있었고 성 밖에는 전투에 쓰는 배를 정비하는 선창과 이를 관리하는 수군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생포왜성은 우리나라 동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왜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16세기 말의 일본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① 내성-중성-외성으로 설명을 구분하여 문맥의 흐름을 정리해 가독성 높임
- ② 어려운 용어 앞에 서술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임
- ③ 19세기 당시 국가유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근거로 관련 사료 설명
- ④ 국가유산의 가치를 부각
- ⑤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풀이

⑤ *평산성(平山城): 평지와 산을 이어 쌓은 성.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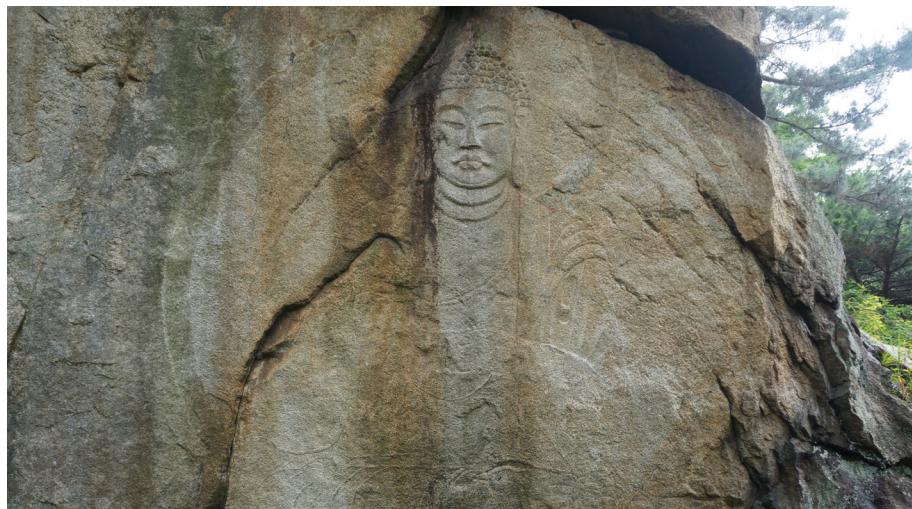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복전암(福田庵) 인근에 있는 3.2m 높이의 불상이다. 이 불상은 높이 6m, 폭 6m 정도의 절벽에 돌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불상의 모습은 유난히 긴 귀와 날카롭게 치켜뜬 눈, 두터운 입술의 강인한 얼굴에 비하여 옷자락은 부드럽게 새겼는데, 안쪽의 옷 위로 겹쳐진 걸옷이 양어깨를 감싸고 있다. 또한 불상은 머리 부분을 깊게 조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얇게 새겼는데, 이는 마애불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법이다.

- ① 옛날 마애불 아래에 신묘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위에서 큰 비위가 굴러떨어져 절이 부서지자 풍수지리에 은학조 스님이 현재 복전암터에 암자를 짓고 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한다.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은 ② 조각 기법, 광배와 옷의 주름에서 보이는 간략하면서도 단순화된 조형 감각, 토속적인 얼굴 표현 등을 볼 때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③ 이 불상은 대전의 유일한 마애불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① 조성 배경 설화를 설명해 흥미 유도
 - ② 제작 시기 추정 근거를 밝힘
 - ③ 국가유산이 지역에서 가진 의미
 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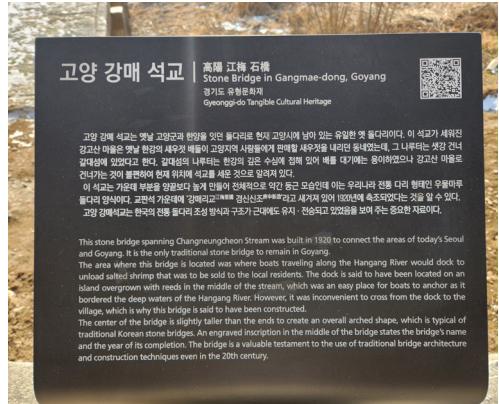


고양 강매 석교

① 고양 강매 석교는 옛날 고양군과 한양을 잇던 돌다리로 현재 고양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옛 돌다리이다. ② 이 석교가 세워진 강고산 마을은 옛날 한강의 새우젓 배들이 고양지역 사람들에게 새우젓을 내리던 동네였는데, 그 나루터는 샷강 건너 갈대섬에 있었다고 한다. 갈대섬의 나루터는 한강의 깊은 수심에 접해 있어 배를 대기에는 용이하였으나 강고산 마을로 건너가는 것은 불편하여 대체 위치로 석교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석교는 거북의 부리를 양모보다 높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약간 둑근 모습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통 다시 형태인 우물마루 돌다리 양식이다. 교판석 가운데에 ‘강매리교(江梅里橋)경신신조(庚申新造)’라고 새겨져 있어 1920년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양 강매석교는 한국의 전통 돌다리 조성 방식과 구조가 근대에도 유지·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① 고양 강매 석교의 쓰임과 가치를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
- ② 석교가 세워진 이유를 이야기로 풀어 이해가 쉽고 흥미로움
- ③ 석교의 제작 양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조선 태조 어진

① 조선 태조 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이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 왕실의 본향이다.

조선은 건국 후 태종 10년¹⁴¹⁰에 조선 왕실이 일어난 전주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그 후 경기전에 모신 태조 어진이 낡아서, 고종 9년¹⁸⁷²에 영희전^{*}의 태조 어진을 모시^{**}하여 다시 모셨다.

② 태조 어진은 전주를 비롯해 태조가 태어난 영흥, 고구려의 왕도 평양, 신라의 왕도 경주, 고려의 왕도 개경 등 지방 5곳에 모셨으나 현재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어진 속의 태조 이성계는 평상시 근무할 때 입는 청색의 곤룡포에 모자인 익선관을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엄과 권위가 돋보이게 그려져 있다. 가슴과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다섯 발톱을 가진 기마를 차고 있으며, 왕복의 옆에는 흰색 치마로 차운다. 머리에는 금색의 벼슬발[†]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③ 또한 태조 어진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을 옮겨 그린 한양 영희전의 어진을 고종 9년에 다시 옮겨 그린 것으로, 조선 초기의 어진 제작 기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조선 태조 어진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어진 박물관에 모셔져 있으며 경기전 정전에 있는 것은 1999년에 원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복제본이다.

④ *영희전(永禧殿): 조선시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셨던 한양의 전각

**모사(模寫): 어떤 그림을 본보기로 그와 똑같이 본을 떠서 그림



- ① 국가유산의 개념을 먼저 밝힘
- ② 어진 조성 배경과 어진의 희소성을 밝혀 가치를 드러냄
- ③ 어진 내용에 대한 국가유산적 가치를 쉽게 설명
- ④ 각주 사용으로 부연 설명

아산 맹씨 행단

아산 맹씨 행단은 고려 말–조선 초기의 청백리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이 살던 곳이다. 이곳은 원래 ① 최영 장군이 살던 곳으로, 그의 손녀사위인 맹사성에게 행단을 물려주면서 맹씨 집안이 대대로 살았다. 앞마당에 6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행단이라 부르게 되었고 전해진다. ‘행단’은 공기 좋은 곳이라는 데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학문을 갈고닦는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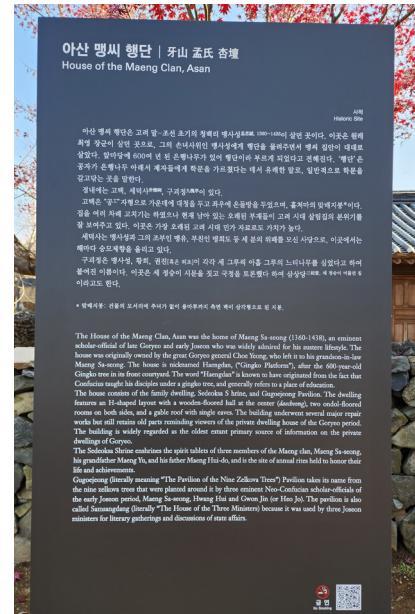
경내에는 고택, 세덕사^{世德祠}, 구고정^{九棟亭}이 있다.

고택은 “공”자형으로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훌처마의 맞배지붕⁵이다. 집을 여러 차례 고치기는 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오래된 부재들이 ③ 고려 시대 살림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가장 오래된 고려 시대 민가 자료로 가치가 높다.

세덕사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 부친인 맹희도 등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숭모제향을 올리고 있다.

구고정은 맹사성, 황희, 권진[혹은 허조]이 각각 세 그루씩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④ 이곳은 세 정승이 시문을 짓고 국정을 토론했다 하여 삼상당^{三相堂, 세 정승이 머물던 집이라고도 한다.}

⁵ *맞배지붕: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



- ① 국가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언급해 더욱 친숙하고 흥미롭게 국가유산을 소개
- ② 국가유산 종류의 개념을 밝혀 이해를 도움
- ③ 국가유산의 가치를 밝힘
- ④ 국가유산의 별칭을 밝혀 흥미를 유발함
- ⑤ 각주 사용으로 전문용어 풀이

5) 안내문안 영문 작성 가이드라인

① 영문 작성 가이드라인

- 기본원칙

(1) 국문 해설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외국인 독자를 위한 영문 해설문을 별도로 작성한다.

- 국문 해설문은 한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번역해서는 적합한 영문 해설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독자의 이해도와 관심사를 고려한 영문 해설문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 외국인 독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이나 관심의 초점이 한국인과 다르다. 지나치게 상세하고 복잡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관계 등에 대한 기술은 줄이고, 대상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맥락 정보는 덧붙이는 등 외국인 독자를 고려하여 해설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이 좋다.

(2) 국가유산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한다.

예시

- | | |
|-------------------------|------------------------------|
| ✓ 이 국가유산은 무엇인가? | ✓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가? |
| ✓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가? | ✓ 어떤 가치와 우수성이 있는가? |

- 대부분의 일반적인 외국인 독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를 매우 친절하게 제공해야 해설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안내판에서 설명하는 국가유산이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를 가장 먼저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 그리고 문화유산 명칭에 사용된 국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보완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 독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 서원: A Confucian academy, called *seowon* in Korean, is a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that usually combined the functions of a Confucian shrine and a lecture hall.
- ✓ 대웅전: Daeungjeon, meaning “Hall of the Great Hero,” is a Buddhist worship hall for the veneration of Sakyamuni, the historical Buddha who lived in ancient India.
- ✓ 읍성: A walled town, called *eupseong* in Korean, was established at an important location in an area to protect residents and serve military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서원, 대웅전, 읍성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영문 정의 예시】

(3)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영문 해설문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어를 모르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려운 용어나 긴 문장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 또한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단락을 구분하면 가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원’ 안내판의 경우, 1) 서원의 정의, 2) 제향인물에 대한 소개, 3) 연혁, 4) 공간 구성 및 주요 건축물, 5)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으로 단락을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 불가피하게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용어의 의미를 괄호 안에 덧붙이거나 별도의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4) 공식 기준에 맞는 표기를 사용한다.

- 음역이 필요한 경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 단, 안내판의 영문 해설문에서는 음역 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외국인 독자가 읽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인명, 지명, 건물의 이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음역 표기를 사용한다.
- 국가유산 명칭은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을 따른다.
- 연도, 도량형, 기호 등은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따른다.

② 주의해야 할 영문 표기 및 구두법

(1) 시대나 특정 사건의 시기

-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왕조 등의 시대가 존속한 기간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함께 제시한다.

예) 이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is presumed to date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그 건물은 한국전쟁 중에 불타버렸다.

The building was burnt dow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 기원전, 기원후를 나타낼 때는 각각 BCE, CE로 표기한다.

예) 이 유적에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의 패총, 무덤, 주거지 등이 있다.

This archaeological site includes shell mounds, tombs, and dwelling sites between the 2nd century BCE and the 3rd century CE.

- 한 왕조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해 쓸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고려 전기

- the early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 O
-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 X

* 2)와 같이 쓰면 괄호 안의 시기가 고려 전기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1)과 같이 먼저 쓴 이후에는 2)처럼 쓸 수 있다.

(2) 외국 인명, 지명, 서명 등의 음역 표기

- 외국의 인명, 지명, 서명 등을 음역 표기할 때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국가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예) 만대현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시인 [두보](#)(712–770)의 시 중 ‘푸른 절벽은 저물녘에 마주하기 잘 어울리네’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The name Mandaeheon means “House of the Evening Meeting” and comes from a passage in a poem by the Chinese poet [Du Fu](#) (712–770) that says, “The green cliff is suitable for an evening meeting.”

3세기 중국에서 편찬된 [『삼국지』](#)에 따르면,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북방의 [낙랑](#), [대방](#)과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고 한다.

According to the *Record of the Three Kingdoms* ([Sanguozhi](#)) written in China in the 3rd century CE, the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produced large amounts of iron which was exported to the [Lelang](#) and [Daifang](#) Commanderi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to Japan.

(3) 왕의 재위기간 표기

- 왕의 재위기간을 표기할 때는 r.을 써서 생몰년의 표기와 구분한다.

예) 용흥궁은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재위 1849–1863\)](#)이 살던 집이다.

[Yongheunggung](#) was the residence where [King Cheoljong \(r. 1849–1863\)](#), the 25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once lived.

(4) 기호의 사용

- ◎ 기간, 거리, 범위 등을 나타낼 때는 줄표(–)를 쓴다.
- ▣ 물결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신 [신숙주\(1417~1475\)](#)의 초상화이다.

This is a portrait of [Sin Suk-ju \(1417–1475\)](#), a renowned civil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 괄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앞 단어에서 한 칸 띄어 쓴다.

예) 주세봉은 한국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지금의 소수서원)**을 건립하였다.

Ju Se-bung established **Baegundongseowon** (present-day Sosuseowon), the first Confucian academy in Korean history.

- ◎ 서명을 표기할 때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훌낫표(「」), 겹낫표(『』), 훌화살괄호(⟨⟩), 겹화살괄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곳은 474년 신라인들에 의해 지어졌다.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built in 474 by Silla people.

- ◎ 여러 단어를 나열할 때는 쉼표(,)를 쓴다.
- ✖ 가운데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 집은 안채·사랑채·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This house consists of a women's quarters, a men's quarters, and a servants' quarters.

(5) ‘cm’, ‘m’ 등의 단위 사용

- 길이, 무게, 너비 등을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할 때는 숫자에서 한 칸 띄어 쓴다.

예) 길이 6.13m, 너비 4.26m의 크기이다.

It is 6.13 m in length and 4.26 m in width.

③ 영문 해설문 작성사례

나주 금성관



국문 해설문

나주는 백제 때의 이름이 발라군이다. 물론 백제 이전에는 불미지국(이병도설)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통일 신라 때 금성군(금산), 903년에 지금의 이름인 나주가 되어 982년(성종2년) 나주목이 되었다가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나주관찰부(16개군 관할)가 설치되고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어 전라남도청이 광주에 설치 될 때까지 천여 년 간 남도의 중심도시였다.

이곳은 나주목관아 중심공간이었던 나주목객사 공간이다. 관아는 넓게 해석하면 읍성과 내부의 각종 건물을 이르는 말이다. 객사는 관찰사가 관할구역을 순행할 때 업무를 보던 곳이요 중앙의 사신(事臣)이 지방에 오면 묵던 곳이었다. 특히 객사의 정청에는 전패를 모셔두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를 행하던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사신을 접대하고(待賓客), 왕정의 위덕을 펴서(宣威德), 관부의 위엄을 세우는(嚴官府) 곳이었다.

금성관 주변은 고려 때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성관의 동익현(벽오현)은 전라도관찰사 이행(1403. 1. 11. ~ 1404. 5 재임)이 벽오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 또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김춘경 목사와 오한 판관이 1480년 중수하였으며, 금성관은 이유인 목사(1487. 4. 12 ~ 1489 재임)가 망화루와 함께 건립하였다. 임란 때 피해를 입어 김개목사(1616. 3. 24. ~ 1617. 4 재임)가 1617년 4월 21일 중수하였고, 1775년 8월 30일 이명중 목사(1775. 3. 14. ~ 1776. 7 재임)가 개수하였다. 이후 1963년 보수를 거쳐 1976년 완전 해체 복원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나주읍성과 나주목관아는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나주목 당시의 동현이었던 제금현(製錦軒)을 나주군청사로 사용하였다. 매일신보 1919년 2월 4일자 나주군청과 창고이축 수리에 대해 도청에 보고하였다는 기사와 1920년에 발간된 『속수나주지』의 기록으로 보아 1919년에 금성관으로 군청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군청으로 쓰이던 제금현은 잠업전습소로 향사당은 금융조합으로 사용하다가 1926년 나신면사무소로 1943년 나주수리조합(해방 후 영산강농지개량조합-농업기반공사나주지사)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에 목조팔작집은 없어졌다. 연청(椽廳)은 경찰서로 도청(都廳)은 지방법원출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군청사를 금성관으로 옮기면서 남문외장을 1920년 폐쇄하고 읍내장만 개장하였는데 이 때 시장터를 지금의 금계매일 시장 쪽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금성관의 동.서익현과 망화루 등은 일제 때 없어지고 금성관만 남았으나 이를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원형이 상실되었다. 금성관 앞쪽으로 나주군청사가 있었으나 2005년 철거하고 외삼문인 망화루를 복원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월대와 박석 내삼문, 각종 부속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나주시에서는 금성관 동.서익현 복원 등 금성관 주변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문 해설문에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 ◆ 영문 해설문에서는 이 안내판이 설명하는 대상 국가유산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있는 건물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그 건 물의 역사나 특징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① 참조](#)

생략해도 좋아요.

- ◆ 국문 첫 단락에 나주 지역의 지명 변화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영문 해설문에 포함할 경우, 로마자로 표기할 지명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영문 해설문에 서는 금성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만 추려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③ 참조](#)
- ◆ 1919년 나주군청사가 금성관으로 옮긴 사실에 대한 근거로 매일신보 기사와 『속주나주지』 기록이 언급됩니다. 외국인 독자를 위한 영문 해설문에서는 사실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떠한 사실의 추정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⑤ 참조](#)

A 영문 해설문

- ❶ A guesthouse, called *gaeksa* in Korean, was a part of a local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910) periods. The guesthouse consists of a shrine in the center, where a wooden tablet symbolizing the king was held, and a room to each side, which was used as temporary lodging for important guests or officials visiting the region on duty. The wooden tablet, enshrined in each local guesthouse, exhibited the king's sovereignty across the country. To acknowledge this sovereignty, the local magistrate and other officials regularly performed a ceremony here in which they prostrated themselves toward the royal capital.
- ❷ Geumseonggwan was the guesthouse of the Naju Local Government, located within Najueupseong Walled Town. The name Geumseonggwan means “Hall of Geumseong” and refers to a former name of the Naju area. ❸ During the Baekje kingdom (18 BCE–660 CE), the Naju area was known as Balla.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it was first renamed Geumseong and then again renamed Naju in 903. In 982,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the local government was promoted from a county to a prefecture.
- ❹ It is unknown exactly when Geumseonggwan Guesthouse was first established. However, it is said that the eastern wing was named Byeogoheon by the provincial governor Yi Haeng circa 1403–1404, suggesting that this part of the guesthouse had already been built by the late Goryeo or early Joseon periods. The central shrine was later constructed circa 1487–1489 under the order of the local magistrate Yi Yu-in. Following significant damag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the building was repaired in 1617 by the local magistrate Kim Gae, and was later rebuilt in 1775 by the local magistrate Yi Myeong-jung. Naju remained the main city of the southern Jeolla region until the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Gwangju in 1896.

- 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the walled town and government offices began to be damaged by Japanese authorities, who used the former magistrate's office, Jegeumheon Hall, as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In 1919, the administrative office was moved to Geumseonggwan Guesthouse, and Jegeumheon Hall began to be used as a training center for silk farming. Other buildings were used as a police station and a local office of the district court. In 1920, the market outside the walled town's South Gate was shut down and only the market inside the walled town remained in operation. It is presumed that the vendors of the market outside the walled town relocated, creating Geumgye Marke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east and west wings of the guesthouse were demolished, as was its main gate, named Manghwaru Pavilion. Thus, the guesthouse lost its original appearance.
- ⑥ The area around Geumseonggwan Hall has undergon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nd reconstruction since the early 2000s. In 2003–2005, the east and west wings, as well as Manghwaru Pavilion, were rebuilt. Naju-gu Office, which had been located directly in front of the guesthouse, was demolished in 2005, allowing for archaeological excavations to be conducted on the site. Findings revealed an inner gate with a wide platform and a stone pathway, as well as auxiliary building sites.

▣ 영문 해설 내용

① '객사'에 대한 설명

① 객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을 관아에 설치했다. 객사는 가운데에 왕의 전패를 모신 정청이 있고, 좌우 양쪽에는 공무로 출장 온 관원이나 고을을 찾은 중요한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익현이 있다. 객사에 모셔진 전패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권을 바탕으로 고을 수령과 관리들은 궁궐을 향해 절하는 망궐례를 행했다.

② 금성관의 정의와 이름 유래

③ 나주 지명의 변화

② 금성관은 나주읍성에 있던 나주목 관아의 객사이다. '금성'은 나주 지역의 옛 이름이다. ③ 백제 때 나주 지역은 밸라군이라 불렸다. 통일신라시대 때 금성군이 되었고, 903년 나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고려 초인 982년 나주목이 되었다.

④ 금성관 창건 및 증건 역사

④ 금성관이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라도관찰사 이행이 1403~1404년 무렵 금성관의 동익현을 벽오현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동익현은 고려 말 또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청은 목사 이유인이 1487~1489년 무렵 건립하였다. 임진왜란 때 파괴된 뒤 목사 김개가 1617년에 중수하였고, 1775년 목사 이명중이 고쳐 지었다. 나주 지역은 1896년 전라남도청이 광주에 설치될 때까지 남도의 중심도시였다.

⑤ 일제의 금성관 훼손

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나주읍성과 나주목 관아는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동헌이었던 제금현을 나주군청사로 사용하였다. 1919년에는 금성관으로 군청사를 옮겼고, 제금현은 임업전습소로 쓰였으며, 관아 내의 여러 건물들은 경찰서와 지방법원출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1920년 남문외장이 폐쇄되고 읍내장만 개장하였는데 이 때 시장터를 금계매일시장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강점기 때 금성관의 동·서익현과 문루인 망화루가 없어지면서 금성관은 원형을 잃게 되었다.

⑥ 발굴조사 및 복원

⑥ 금성관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발굴조사와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2003~2005년 동·서익현과 망화루가 복원되었다. 금성관 앞에 있던 나주군청사는 2005년에 철거되어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월대와 박석 내삼문, 각종 부속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칠곡 송림사 대웅전



국문 해설문

송림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경상도에 조성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 중 가장 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세워진 사찰 건물들이 대부분 정면 3칸, 측면 3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송림사는 다른 사찰보다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중수기』, 「칠곡송림사대웅전중수상량문」에 따르면 송림사 대웅전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승려장 각원이 인조 27년(1649)에 재건하였고, 영조 31년(1755)과 철종 1년(1850)에 다시 고쳐 지었다고 한다. 편액은 숙종(1674~1720 재위)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전 공포의 형식, 창호, 신방목**, 불단의 조각 수법 등은 당시 건축은 물론 장엄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다포(多包): 각각의 기둥머리 위와 그 사이의 공간에 짜 올린 나무 부재. 다포계 양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화려하여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전이나 사찰건축 등 권위 있는 건물에 사용되었다.

**신방목(信枋木): 문설주나 기둥 밑에 가로 방향으로 끼어 댄 나무.



영문 해설문에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 ‘대웅전’이라는 불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을 설명합니다. → [영문 해설문](#)

① 참조

◆ 대웅전이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전각이라는 정보와 함께, 실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국가유산에 대한 흥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⑤ 참조

생략해도 좋아요.

◆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규모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 독자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수치로 규모를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상량문’은 간단한 영어 어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상량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와 같이 어떤 사실의 근거로 언급된 경우라면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② 참조

A 영문 해설문

① Daeungjeon, meaning “Hall of the Great Hero,” is a Buddhist worship hall for the veneration of Sakyamuni, the historical Buddha who lived in ancient India. It is the main worship hall of Songnimsa Temple.

② It is unknown when this hall was first established. It burnt down in the Japanese invasion of 1597, was built anew in 1649, and underwent renovations in 1755 and 1850.

③ The building features a gable roof with double-tiered eaves. The roof is supported by many intricate brackets that are installed atop both the pillars and the lintels. This Daeungjeon Hall is larger than most worship halls constructed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is the largest gable-roof building with both pillar and lintel brackets in the Gyeongsang-do area. The scale of the building suggests that the temple had a special status at the time it was built.

④ The building's name plaque is said to have been calligraphed by King Sukjong (r. 1674–1720) of Joseon. ⑤ The hall enshrines a Buddha triad (Treasure) consisting of Sakyamuni flanked by the bodhisattvas Manjusri and Samantabhadra.

★ 영문 해설 내용

①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을 모시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법당이다. 송림사의 중심건물이다.

① 대웅전에 대한 설명

② 대웅전은 언제 처음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49년에 다시 지었고, 1755년과 1850년에 보수하였다.

② 송림사
대웅전의 연혁

③ 이 건물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얹었고, 지붕을 받치는 화려한 공포가 여럿 설치되어 있다. 송림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불전 중 규모가 큰 편이고, 경상도에 지어진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 중 가장 크다. 건물 규모로 볼 때 당시 송림사는 다른 사찰보다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건축적 특징

④ 건물 정면에 걸린 편액은 숙종(재위 1674–1720)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전각 내부에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로 구성된 삼존불(보물)이 모셔져 있다.

④ 편액

⑤ 전각에 모셔진
불상

함양 허삼둘 고택



국문 해설문

허삼둘 고택은 진양 갑부 허씨의 딸 하삼둘이 토호 윤대홍에게 시집와서 지은 집으로, 상량문에 1918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집은 안채·곡간채·행랑채·사랑채가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안채의 구성이 특징적인데, 앞 뒷마루를 열어 부엌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내었으며, 부엌을 중심으로 방들을 겹집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안채의 구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과감히 탈피한 여성 중심의 공간 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고택은 조선 후기 신분제도 철폐와 신흥 부농층의 출현으로 변화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집으로도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영문 해설문에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 ❖ 외국인 독자들은 한국 전통 가옥의 일반적인 구조나 특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옥들은 유교 사상에 따라 남성 위주로 공간을 배치했다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④ 참조](#)
- ❖ 우리나라 전통 가옥 중 드물게 여성의 이름을 따라 가옥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② 참조](#)

A 영문 해설문

- ❶ This house was built in 1918 by Heo Sam-dul, a daughter of a wealthy Heo family of the Jinyang area (present-day Jinju), after she married her husband Yun Dae-hong. ❷ It is one of the only traditional houses in Korea to be named after a woman.
- ❸ The house consists of a gate quarters, an outer servants' quarters, a men's quarters, a women's quarters, an inner servants' quarters, and a storehouse. The latter four buildings together form a square layout with a courtyard in the middle. The men's and women's quarters were damaged by fire in 2004 and repaired in 2014.
- ❹ The women's quarters of this house is known for its highly unusual layout, which took into consideration the comfort of its female residents, rather than simply following Confucian principles that prioritized the male residents, as was the case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It has an L-shaped layout with a kitchen in the inner corner, underfloor-heated rooms to each side, and a wooden-floored hall to the right. It also features a narrow wooden veranda along the front and a direct passageway to the kitchen, which make it easier to move throughout the building. Due to these features, the house is particularly valuable in the study of how traditional architecture came to prioritize functionality over Confucian tradi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 영문 해설 내용

① 가옥 창건 내력

② 가옥 이름의
특징

③ 가옥의 구조

④ 안채 구조의
특징과 의미

① 이 집은 진양(지금의 진주 지역) 갑부 허씨 가문의 딸 허삼돌이 남편 윤대홍과 결혼한 뒤 1918년에 지었다. ② 한국의 전통 가옥 중 매우 드물게 안주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집이다.

③ 대문채, 바깥행랑채, 사랑채, 안채, 안행랑채, 곳간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문채와 바깥행랑채를 제외한 나머지 4동의 건물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자형을 이루고 있다. 2004년 안채와 사랑채가 화재로 훼손되었다가, 2014년에 보수되었다.

④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에 따라 남성 위주로 공간을 배치하였으나, 이 집의 안채는 여성의 편의를 고려한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안채는 ㄱ자형 건물의 중앙에 부엌을 두고, 부엌 양옆에 온돌방을 배치하였으며, 오른쪽 방 옆에 대청을 두었다. 부엌 바로 앞에는 출입을 위한 통로를 만들었고, 온돌방 앞에는 뒷마루를 두어 동선이 편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기존의 유교적 관습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등 20세기 초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산군 이전 묘역



국문 해설문

이곳 묘역은 조선 제9대 성종(成宗)의 13남인 영산군(寧山君 : 1490~1538) 이전(李恮)과 그 아들인 장흥군(長興君) 이상(李祥), 손자 덕원도정(德源都正) 이경의(李鏡義), 증손자 강진부정(康津副正) 이종(李琮) 등 4대에 걸친 묘역으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묘제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산군(寧山君)의 묘역과 문인석, 장명등 등 묘역 내 배치된 석물들은 당대의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학술 가치가 매우 높다.

생모는 숙용심씨(淑容沈氏)이며, 연산군 시절 승마경주로 진성대군(중종)의 목숨을 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1506년(중종 1) 중신들과 반정을 도모하여 연산군(燕山君)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추대하여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 1등에 책록된다.

그러나 1523년(중종 18) 박영문(朴永文) · 신윤무(辛允武) 등의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유배되었다가 1527년(중종 22) 삼공(三公)의 건의로 사면된다. 그 후 북한산록 진관한촌(津寬寒村 : 현재 재말)으로 물러나 자연을 벗삼다가 1538년(중종 33) 향년 49세로 정침에서 타계하였다.

묘는 쌍분(雙墳) 삼위장(三位葬)으로 향작족의 묘는 영산군과 첫 부인인 금릉군부인(金陵郡夫人) 청송심씨 와의 합장묘이고, 향우족의 묘는 둘째부인인 교성군부인(交城郡夫人) 경주정씨의 묘이며, 향우족 기슭엔 셋 째부인인 군부인(郡夫人) 함흥황씨의 묘가 있다.

금릉군부인 심씨의 이수형(螭首形) 대리석 묘표의 수려한 조각과 교성군부인 정씨의 하엽형(荷葉形) 화강암 묘표도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영문 해설문에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 영산군 이전이 중종의 대군 시절 목숨을 구한 일화가 언급됩니다. 외국인 독자들은 한국인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문에서는 간단히 언급한 이야기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야기의 내용을 풀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② 참조](#)

생략해도 좋아요.

◆ 영문 해설문에서는 인물의 이름 외에 호, 군호, 시호, 별호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외국인 독자가 편하게 읽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해설문 ① 참조](#)

◆ 중종반정 이후 영산군 이전의 행적을 설명한 단락에는 인명, 지명, 역사적 사건 등이 다수 언급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복잡하게 제공되면 외국인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되므로 인명 등은 생략하고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 [영문 해설문 ③ 참조](#)

A 영문 해설문

- ❶ This is the tomb of Yi Jeon (1490–1538, i.e. Prince Yeongsan), the 13th son of King Seongjong (r. 1469–1495)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His older half-brothers include Prince Yeonsan (i.e. King Yeonsangun, b. 1476, r. 1495–1506) and Prince Jinsan (i.e. King Jungjong, b. 1488, r. 1506–1544).
- ❷ In his youth, Prince Yeongsan was loved dearly by his father for his intelligence and wisdom. According to a story, one day Prince Yeonsan challenged Prince Jinsan to a horse race and said that the loser w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military law. Prince Yeongsan, knowing that his horse was very fast but could only be controlled by him, offered to race instead of Prince Jinsan. He beat Prince Yeonsan to the palace gate and was able to spare Prince Jinsan from punishment. ❸ However, later, after Prince Yeonsan was replaced by Prince Jinsan as king, Prince Yeongsan was falsely accused of being involved in several rebellions. In 1523, he was exiled to Hwanghae-do Province. After being reinstated in 1527,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secluded in nature in today's Jingwan-dong, Eunpyeong-gu.
- ❹ Prince Yeongsan's tomb consists of two earthen burial mounds and ten stone sculptures. The burial mound to the left interts Prince Yeongsan and his first wife, Lady Sim, while the one to the right interts his second wife, Lady Jeong. There is also a burial mound for his third wife Lady Hwang at the base of the hill to the right. The stone sculptures are highly valued as they show the typical form of the 16th century. In particular, the marble tombstone of Lady Sim and the granite tombstone of Lady Jeong display outstanding artistry through their fine craftsmanship.
- ❺ On the hill in front of Prince Yeongsan's tomb are the tombs of his son Yi Sang, grandson Yi Gyeong-ui, and great-grandson Yi Jong. Spanning four generations, the cemetery shows the changes in burial practices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 영문 해설 내용

① 묘역 주인 이전에
대한 설명

① 이곳은 조선 성종(재위 1469–1495)의 13남인 영산군 이전(1490–1538)의 묘이다. 이전의 형제로는 연산군(재위 1494–1506)과 진산대군(후의 중종, 재위 1506–1544) 등이 있다.

② 진성대군의
목숨을 구한 일화

② 영산군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현명하여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연산군이 진산대군에게 승마 경주를 제안하면서, 경주에서 진 사람은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영산군은 “제 말이 매우 빠르지만, 제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진산대군을 대신하여 연산군보다 일찍 궐문에 도착하였고, 진산대군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③ 그러나 중종이 즉위한 이후 영산군은 여러 역모 사건에 연루되는 모함을 받았고, 1523년에는 황해도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1527년 사면된 뒤 지금의 은평구 진관동 지역에 은거하며 자연을 벗삼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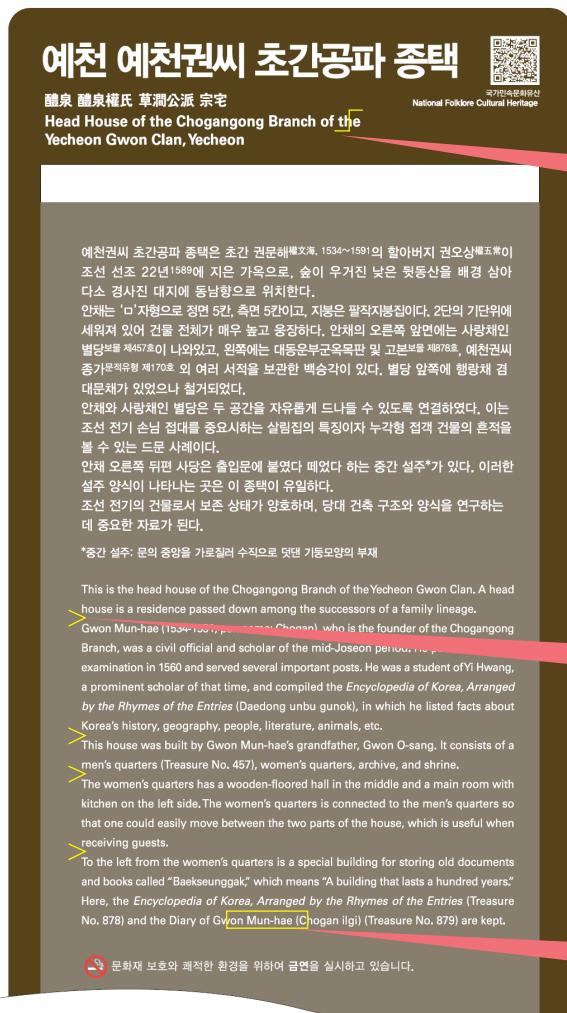
③ 중종반정 이후의
행적

④ 영산군의 묘는 2개의 봉분과 10개의 석물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 봉분은 영산군과 첫 부인인 청송심씨의 합장묘이고, 오른쪽은 둘째 부인인 경주정씨의 묘이다. 오른쪽 기슭에는 셋째 부인인 함흥황씨의 묘가 있다. 묘 앞의 석물은 16세기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어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청송심씨 대리석 묘표와 경주정씨 화강암 묘표는 수려한 조각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⑤ 묘역 내 후손의 묘소

⑤ 영산군의 묘 인근에는 아들인 이상, 손자 이경의, 증손자 이종의 묘소가 있다. 4대에 걸쳐 조성된 묘역으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묘제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④ 안내판 최종 시안 검수사례



- 영문으로 표기된 국가유산 명칭의 길이가 길어서 줄 나눔이 필요한 경우, 의미 단위에 따라 줄 나눔을 해주는 것이 좋다.
- 단락 사이에 줄 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해서 단락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국어 일반명사를 음역으로 표기한 경우와 서명 등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안동 예안 이씨 충효당 | 보물 Treasure

安東 禮安 李氏 忠孝堂
Chunghyodang House of the Yean Yi Clan, Andong



충효당은 예안 이씨 이홍인^{李洪仁} 가문의 종택으로, 명종 16년¹⁵⁵¹에 지어졌다고 한다. 종택이란 가문의 맏이가 대대로 살아온 집을 말한다.

충효당이라는 이름은 이홍인의 충절과 그의 후손인 이한오^{李漢五}의 헌행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이홍인은 풍산에 처음을 정착한 예안 이씨인 이영, 이진, 이훈 삼 형제 중 이전의 둘째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재산을 들어 의병을 일으켰으며, 지금의 안동 구담리 지역에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한오는 몸이 아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으며 학문으로도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충효당은 'ㅁ' 자형의 본체와 누각 형태의 별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래는 1974년에 해체한 후 복원되었다. 별당에는 '쌍수당^{雙手堂}'과 '백원당^{百圓堂}'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쌍수당은 '충과 효를 함께 닦은 집'이라는 뜻이고, 백원당은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는 뜻의 「백현지원^{百賢之源}」에서 비롯되었다.

충효당에서 북서쪽으로 약 750m 떨어진 풍산 우체국 바로 옆에는 이홍인과 이한오에게 내려진 정려^{**}를 모신 예안 이씨 정종·정효각(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이 있다.

*편액^{匾額} : 널빤지나 종이, 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

**정려^{旌牌}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Chunghyodang House, said to have been built in 1551, is the head house of the descendants of Yi Hong-in (1525-1594) of the Yean Yi Clan. A head house is a residence passed down among the male successors of a family lineage. The name Chunghyodang, meaning "Hall of Loyalty and Filial Piety," commemorates the patriotic loyalty of Yi Hong-in and the filial devotion of his descendant Yi Han-o (1719-1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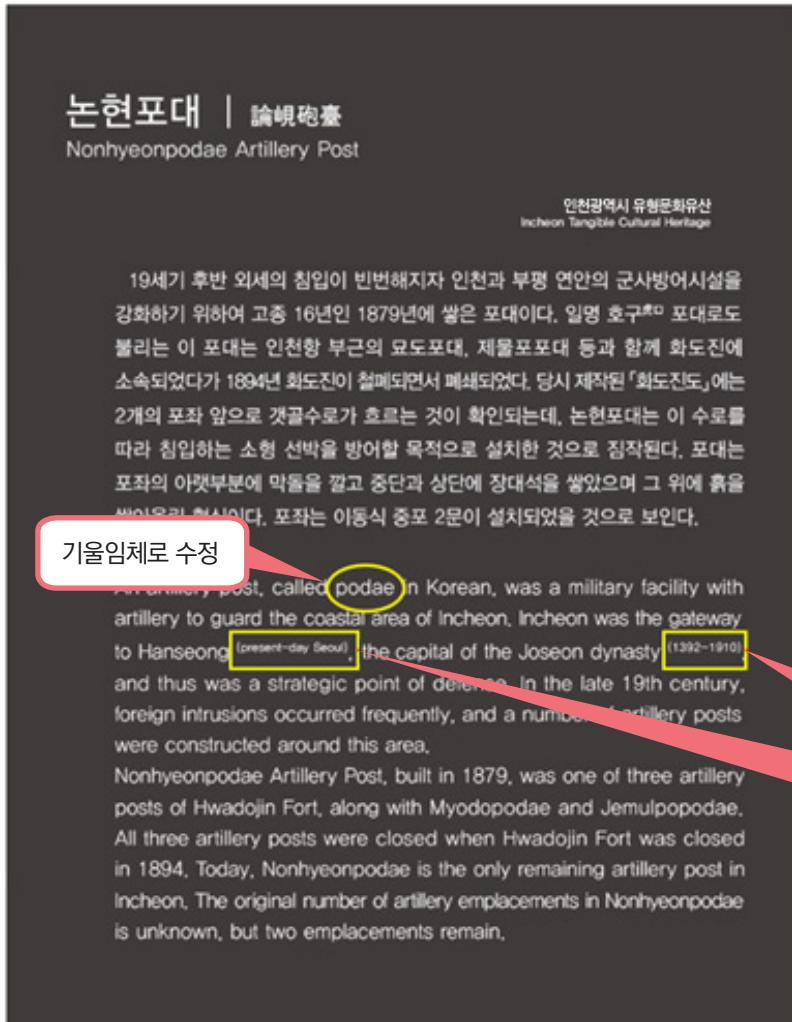
Yi Hong-in was the second son of Yi Jeon (1486-1529), who, alongside his brothers Yi Yeong (1482-?) and Yi Hun (1489-1552), became the first members of the Yean Yi Clan to settle in Pungsan (present-day Pungsan-eup, Andong). When Japan invaded Korea in 1592, Yi Hong-in gave all of his personal possessions to mobilize a local civilian army and died heroically in a battle in Gudam-ri Village, Andong. Yi Han-o became known for his academic excellence and for taking care of his ill father with the utmost devotion.

The house consists of a main quarters and a pavilion, which serves as a detached quarters. The main quarters has a square layout with a courtyard in the middle. It was dismantled and renovated in 1974. The pavilion features two name plaques. One reads Ssangsudang, meaning "Hall of Twin Cultivations," referring to the virtues of patriotic loyalty and filial devotion. The other reads Baegwondang, meaning "Hall of One-Hundred Origins," which is a reference to how filial devotion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About 750 m to the northwest of the house are two pavilions (Gyeongsangbuk-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which house commemorative plaques issued to Yi Hong-in and Yi Han-o in recognition of their virtues.

줄 끝에서 단어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정

- 줄 끝에서 단어를 이음표(–)로 끊어 쓰지 않는다. 줄 나눔의 기준을 '단어'로 하거나 간격을 조정해서 단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위첨자 쓰지
않도록 수정

- 한국어 일반명사를 음역으로 표기할 경우,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 괄호 안에 쓴 내용을 위첨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I

안내판 정비 전

2. 안내판 디자인

1) 안내판 형태 및 크기	078
2) 안내판 소재 및 색상	081
3) 안내판 정보요소	083
4) 안내판 설치	092
5)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이해	093
6) 안내판 디자인 사례	098

1) 안내판 형태 및 크기

» 형태

- ①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국가유산이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 ②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과거의 안내판 형태를 지양하고 해당 국가유산 유형에 어울리는 크기와 형태를 선택하되 국가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③ 해당 문화유산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④ 성격이 유사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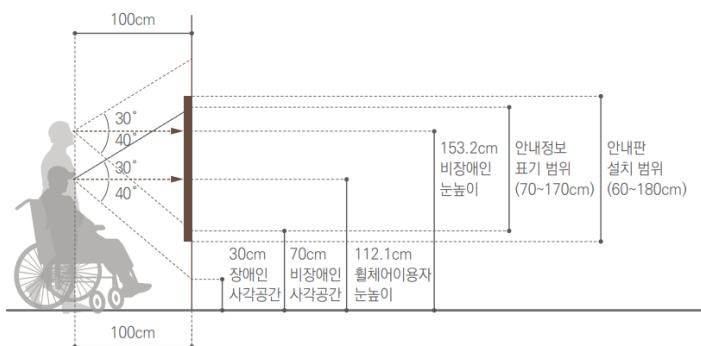


종합안내판(해설안내판)과 길찾기안내판(기능성안내판)의 형태가 다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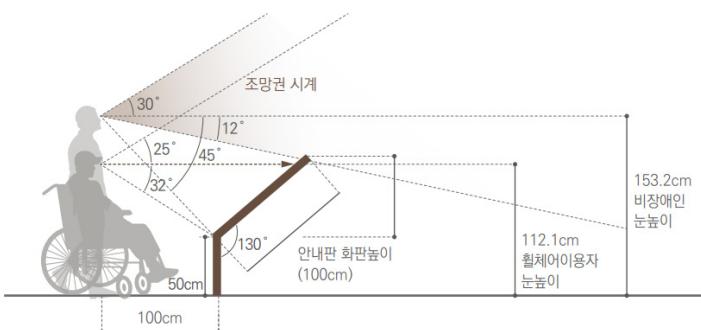
» 크기

① 안내판은 휴먼스케일을 지향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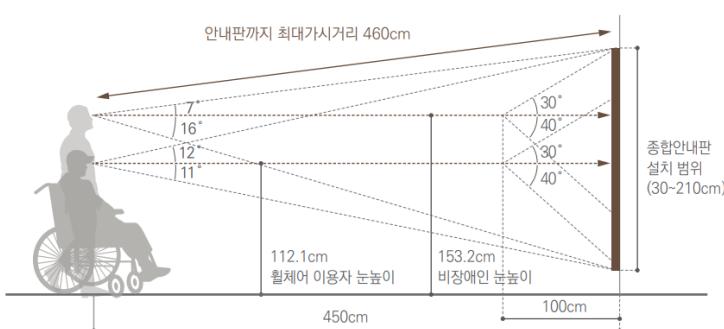
지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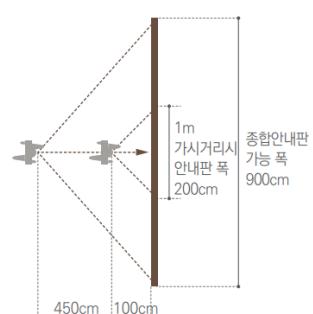
경사식 지주형



지주형 – 종합안내판



안내판 너비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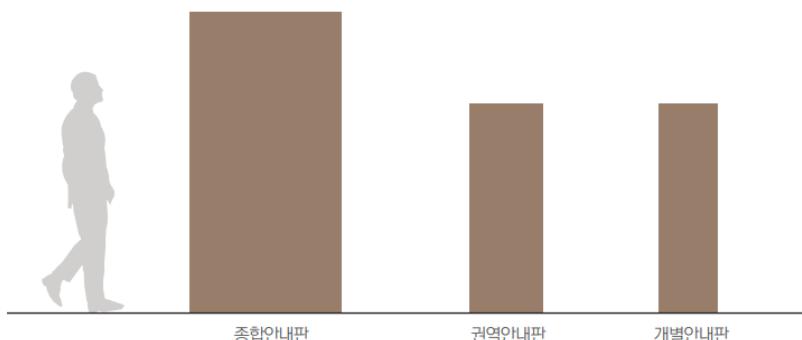
안내사인의 이상적인 높이와 너비

- ②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국가유산을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국가유산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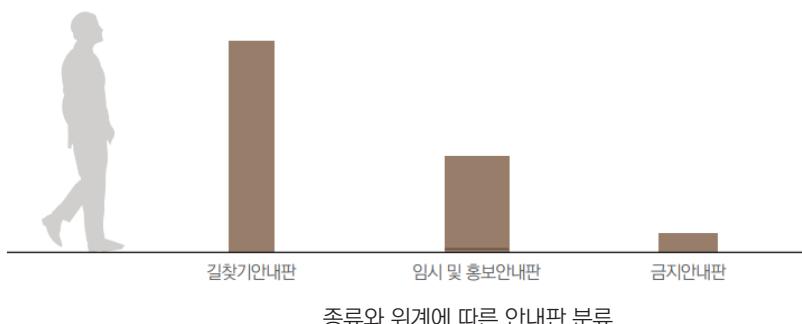


국가유산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한 국가유산 안내판 사례
 (좌) 궁궐(종합 안내판) / (우) 사찰 석물(개별 안내판)

- ④ 면 단위 국가유산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제작한다.



기능성안내판
 길찾기 > 금지 > 임시/홍보 →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 따른 안내판 크기



종류와 위계에 따른 안내판 분류

2) 안내판 소재 및 색상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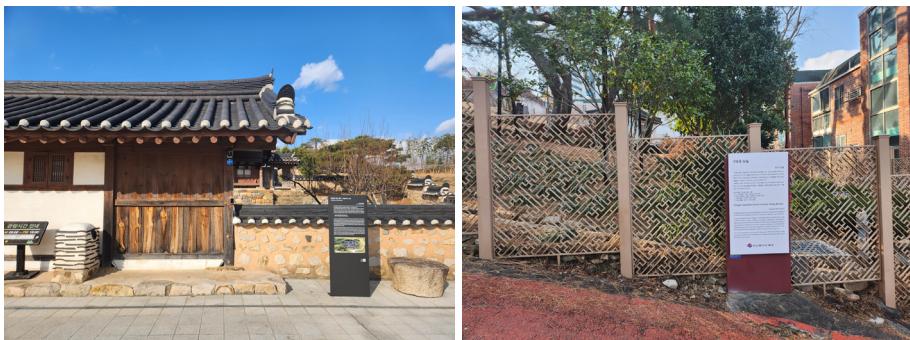
- ① 대상 국가유산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 ② 국가유산의 관람 및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한다.
- ③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인공소재 사용 시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 마감을 한다.
- ④ 해당 국가유산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장단점 비교

소재	장점	단점
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움 • 다른 소재보다 제작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하면 수축하여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릴 수 있음
비철금속 (두랄루민, 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환경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이 용이함 • 내용 표기가 쉬우며 가독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온도차에 의한 수축 팽창이 심하고, 강도가 약함 • 절곡 및 용접 가공이 까다롭고 유지 보수가 어려움 • 제작 단가가 높음
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관리가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표기가 어려움 • 부피감이 있어 안내판이 부각될 수 있음 • 제작 단가가 높음
스테인리스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 수축 팽창 및 내충격 강도가 우수함 • 금속 재질 중에 가공이 우수하고, 비교적 저렴함 • 양각 및 점자 표기가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표면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식 및 녹 발생으로 표면이 거칠어지고 외관이 손상됨 • 외부 기온에 따른 열전도율이 낮은 편임

» 색상

① 대상 국가유산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국가유산 안내판 사례

② 안내판은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③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④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빨강, 노랑)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⑤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⑥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글자색은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정보 표기 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의 대비로 정보를 제공한다. 배경과 문자의 명도차가 높을수록 식별성이 높아진다.



식별성이 높은 명도차(권장)

국가유산



식별성이 낮은 명도차(지양)

국가유산

국가유산

* 시각적 약자는 어두운 배경의 밝은 글자가
밝은 배경의 어두운 글자보다 식별하기 쉽다.

3) 안내판 정보요소

» 서체

- ①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 ②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 ③ 서체는 인지성이 높은 고딕 계열의 서체를 권장한다.

글자 크기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 목	본 문	제 목	본 문	제 목	본 문	제 목	본 문
서체 급수 (minimum)	100	50	80	40	70	35	150	110

권장 서체

권장			권장			권장		
궁서체	바탕체	고딕체	Light	Medium	Bold	윤고딕	산돌고딕	본고딕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언어별 권장 서체 및 사용 가능한 서체

구분	권장서체	사용 가능한 서체
한글		윤고딕, 산돌고딕 등 고딕계열
로마자	본고딕(Noto sans CJK)	Helvetica, Universe 등 고딕계열
기타 외국어		MS UI Gothic 등 고딕계열

»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국가 표준(KS S ISO 7001)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연령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국가표준 픽토그램((KS S ISO 7001)_공공편의시설 /상업시설 / 교통 /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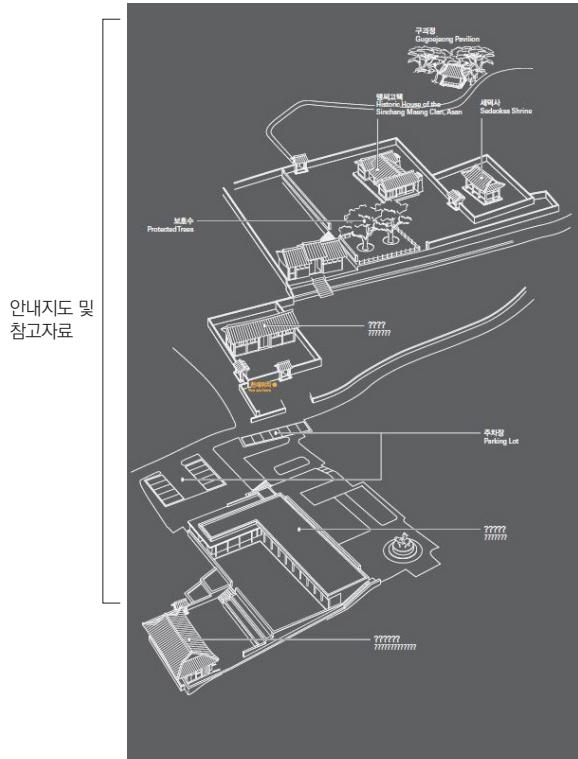


국가표준 픽토그램((KS S ISO 7001)_금지 / 주의 / 지시 / 안전

» 배열/배치

- ① 간결하게 작성하되 그림과 사진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 ② 안내문안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용어나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한다.
- ③ 관람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안내문안과는 별도로 입체지도 혹은 상징 그림 등을 삽입할 수 있다.

명칭(국문, 한문, 영문)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House of the Maeng Clan, Asan
지정유형 (국문, 영문)	사적 Site
문안 내용 (국문, 영문)	<p>아산 맹씨 행단은 고려 말~조선 초기의 청백리 병사 성자상 (1300~1420)이 살린 곳이다. 이곳은 원래 폐성 장군이 살던 곳으로, 그의 손녀사위인 병사상에게 행단을 물려주면서 행제 장인이 대대로 살았던 곳이다. 행단에서 면적 큰 행당(가옥)이 있어 맹단이라 부르게 되었라고 전해진다. 행단은 당시에는 행당이라 하면서 세수를 끌어 모여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일호로, 일관적으로 학문을 강교하는 곳을 말한다.</p> <p>장단에는 그제, 세수사(세수사·구포정사)와 구포정사(구포정사)가 있다.</p> <p>고택은 “행단” 자체로 가문대의 대장을 두고 좌우에 운동방을 두었으며, 흙자마의 맞대자정*이다. 절을 여러 차례 고치기는 행단으로 현재 남아 있는 오래된 복제들이 고려 시대 설립질의 본래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가장 오래된 고려 시대 텔거 가옥으로 가치가 높다.</p> <p>세수사는 행자상과 그의 조부인 행유, 부친인 행희도 등 세 쪽의 위력을 묘사한 일호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수요제를 행하고 있다.</p> <p>구조식은 병사상, 황회, 흰집(화전 흰집)이며 각각 세 그루의 아울 그후의 노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불어진 이름이다. 이것은 세 경승이 시분을 짓고 국정을 모토했던 학이 삼상당(三上堂), 세 경승이 미루던 길이라고 한다.</p> <p>* 맞대자정: 진을 친 자(자)에서 축복이 없어 용마루에서 축면 해이 용마루로 된 자루.</p>
에티켓 프로그램	



④ 시설물 명칭은 알기 쉽도록 상단에 큰 글씨로 부각한다.

⑤ 본문은 상단과 다른 서체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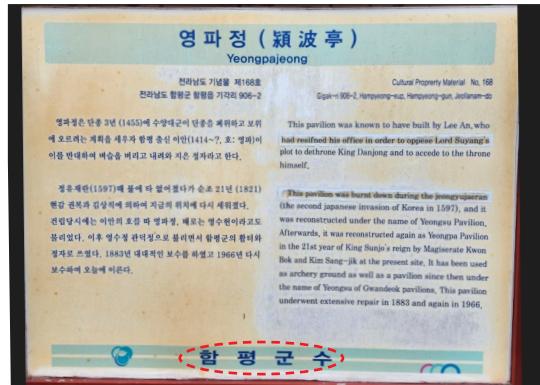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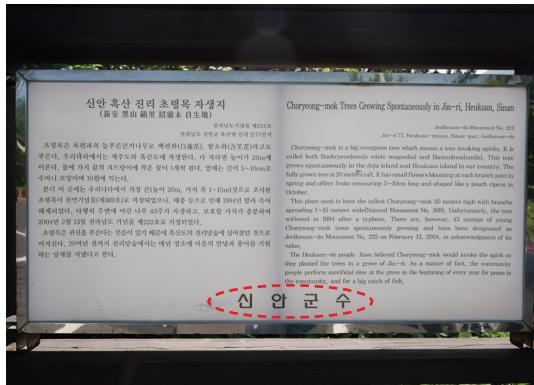
⑥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통일된 디자인 선정과 내구성, 친환경, 단소저감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한다.

⑦ 친환경적 소재로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목재 등이 있다.



» 로고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 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혹은 측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배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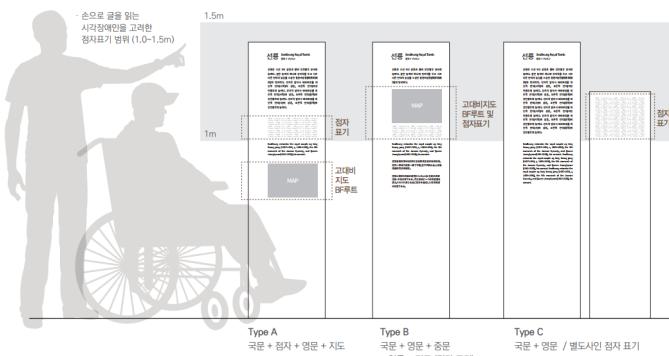
로고 삽입의 부적절한 사례



로고 삽입의 바람직한 사례

» 점자

- ①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한다.
- ②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를 권고한다. 예외로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내용이 많을 경우, 중심 선이 1.0~1.5m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문을 제외한 본문(영문/중문/일문)은 적용면적을 고려하여 축약하여 사용한다.
- ④ 점자 표기의 기본원칙은 한국 점자표기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준한다.
- ⑤ 점자 표기는 문안이 적을 경우, 국문과 함께 표기하되 문안이 많을 경우, 별도의 시안을 설치하여 표기한다.



점자 표기 범위 예시

※ 상세내용은 한국 시각 장애인연합회규격 참고



경복궁 점자안내판

» 다국어표기

- ① 모든 기능성안내판 정보는 한글과 영어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다국어 표기 순서는 국문-영문-기타 외국어 순으로 표기한다.

2개 국어 조합 기준

선릉	X
	5x
Seolleung	5x

4개 국어 조합 기준

선릉	X
	6x
Seolleung	5x
	3x
宣陵 ソンルン	3.5x

선릉	Seolleung	4.5X	X
		2.5X	3X

화살표 + 4개 국어 조합 기준

← 선릉	X
	6x
Seolleung	5x
	3x

← 선릉	X
	6x
20M Seolleung	5x
	3x

QR코드

- ① 국가유산을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면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되, 국가유산과 관련 있는 정보만 담는다.
 - ② 위치 :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③ 재질 및 색상 : 인식이 잘되도록 설명하고 이질감없도록 한다.

※ QR코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4) 안내판 설치

▶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위치, 방식

- ① 국가유산과 주변 경관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
- ② 안내판이 너무 크거나 높지 않고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③ 안내판의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④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동선과 연계하여 설치
- ⑤ 훑어져 있는 안내판과 안내 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설치
- ⑥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해 구역을 통합하여 안내가 필요한 최소의 안내판을 설치
- ⑦ 국가유산과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함
- ⑧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
- ⑨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유의사항

- ① 설치 비용 고려 시 안내판 보수 및 철거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② 설치 업체와 계약 후 납품을 받을 시, 원경, 근경, 안내문안 3장의 사진 파일 원본을 별도로 납품 내역에 넣으면 사후관리 시 용이하다.
- ③ 설치 시 기후나 현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점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④ 개별 맞춤형 안내판 제작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5)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이해

»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떨어진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는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시력이 약해서 물체를 분간하기 힘든 ‘약시’, 색구분을 잘할 수 없는 ‘색각이상’,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시야협착’ 등이 있다.

특성

- 글자나 숫자를 인쇄 상태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 작은 글자, 긴 문장 등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약시자는 작은 문자나 섬세한 도형을 인식하기 어렵다.
- 방향 안내 사인을 볼 수 없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아는 경우가 많으나, 후천적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점자를 알지 못한다.
-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 있으면 길을 찾기 어렵다.
- 수직 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이 없으면 경사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인식하기 어렵다.
- 약시자는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배려사항

- 시각 대신 음성(소리), 점자, 유도블록 등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해결책으로 점자만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약시자를 위해서는 문자나 도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대비를 강하게 해야 한다.
- 유도블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며, 경사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거나 난청 등으로 인해 소리에 의한 정보 입수가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정도에 따라 ‘농아’와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아는 소리를 전혀들을 수 없거나 청력이 남아있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난청은 보청기 등으로 남아있는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이다.

특성

- 소리에 의한 안내나 정보 입수가 어렵다.
- 실시간 정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 시야 범위 외에 청각적 정보를 알지 못한다.

배려사항

- 소리 대신에 시각, 촉각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시야 범위 안에 시각적인 정보를 유도하는 수단을 배치한다.
- 긴급 문자메시지, LED 전광판 등 시각적인 방법과 진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지체장애인·휠체어사용자

상지, 하지 또는 신체구조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특성

- 시선의 높이가 일반 성인에 비해 낮다.
- 손이 닫는 범위가 한정되어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은 달기 힘들다.
-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통행이 곤란하다.
- 이동경로 내에 단차, 계단, 높은 경사로가 있을 경우 통행이 곤란하다.
- 휠체어 탄 채로 접수대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

배려사항

- 휠체어 사용자의 시선 범위 내에 정보를 배치한다.
- 휠체어 폭을 고려하여 통로의 폭을 설계한다.

- 편의시설의 접수대 등에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경사로를 표기하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안내한다.
-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내용을 표기한다.
- 단차를 없애거나 1/18 이하의 평坦한 경사로로 조성한다.

» 사회약자

노약자

노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감각, 인지, 신체기능이 저하된다. 작은 글씨가 잘 안보이고,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능이 두드러지게 저하된다. 근력, 지구력, 민첩성도 떨어지며 기억력, 학습능력도 저하된다.

특성

- 시각, 청각능력의 저하로 인해 정보인지와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하다.
- 상황에 대한 반응 능력이 부족하다.
-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우며 높은 음을 듣기 힘들어지고 보통의 볼륨으로 소리를 인식하기 어렵다.
- 섬세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기 힘들어진다.
- 한색 계열의 색상과 유사 색상 간의 구별이 힘들다.
-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다.
- 긴 이동의 연속 보행과 긴 시간 서 있기가 곤란하다.
-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와 같은 보조 장치에 의존하기도 한다.
- 계단, 단차를 넘기가 어렵다.
- 밀고 당기는 힘이 부족하다.



배려사항

- 글씨의 크기를 크게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적절한 조명과 대비가 강한 색상, 명암 차가 큰 색상들을 사용한다.
- 단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가급적 문자 사용을 줄이고 픽토그램, 심벌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긴급상황을 알릴 때는 소리 신호와 시각 신호를 함께 제공한다.
- 누구나 쉽게 닿는 범위, 간단한 조작법으로 설계한다.
- 다른 신체(손목, 발 등)를 이용하여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등을 고려하여 보행로나 문 등의 폭을 여유 있게 한다.

유아동반자·어린이·임산부

유아동반자는 대부분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거나 업고 다녀야 하고 동반한 아이를 항상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든다. 어린이는 월령 및 연령대별로 신체, 심리 등의 발달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성

-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어른 키에 맞춰진 시설물의 정보를 읽을 수 없다.
- 어린이는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 어린이는 호기심 때문에 아무거나 만진다.
- 유아동반자를 위한 공간은 출산 전후의 임산부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임산부는 보행이 불안정하다. (특히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발밑이 잘 안 보인다.)
- 유아동반자, 임산부는 장시간 서 있기가 곤란하다.
- 기저귀 교환과 수유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배려사항

- 어린이의 신장과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높이나 깊이를 적절하게 정한다.
-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잘못 사용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동·교통약자

휠체어를 탈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으나 행동상의 부자유함 때문에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에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보행이 곤란한 사람 중에는 지팡이, 목발, 의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성

-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야 움직일 수 있다.
- 지팡이나 목발 등의 사용으로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 계단, 단차가 있거나 경사로에서 걷기 어렵다.
- 보행 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회전운동에 어려움이 있다.

배려사항

- 경사로의 각도를 완만하게 하며, 경사로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유 유효 폭 및 유효 높이를 확보한다.
- 일정 간격마다 벤치 및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 언어약자

외국인·관광객

대부분의 외국인은 우리의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안내 사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성

- 한글로만 되어있는 안내 사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 나라별 문화 차이로 인한 정보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여행 가방이나 카메라, 지도 등을 휴대하고 있어 양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배려사항

- 한글 외에 영어 등 다국어 체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 그림, 도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다국어 책자로 사전 안내를 준비한다.

6) 안내판 디자인 사례

» 수원화성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특수성을 살려 제작

- 수원화성은 세계유산 등재시 아래의 두가지를 높게 평가
‘성곽과 시설물 축조시 지형을 활용했다.’
‘축성기록인『화성성역의궤』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리보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수원화성만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국가유산 안내판 디자인을 목표로
수원화성의 특징 중 방위, 지형, 화성성역의궤 등 기록자료를 디자인 요소로 설정



모든 안내판은 정면, 측면에 방위색을 넣어 시각적으로 권역구분하여 디자인

- * 수원화성은 축성기록『화성성역의궤』에 동서남북 권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현재 성곽을 따라 방위를 표현하는 깃발이 약 10미터 간격으로 세워져 있음
방위색을 부여한 국가유산 안내판과 깃발을 함께 활용, 수원화성만이 가능한 디자인

» 수원화성

① 현황 및 개선사항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과 형태, 디자인의 통일성 부족 • 2002년 설치된 안내판 노후 일괄 정비 필요성 • 문안의 내용은 단순정보만 기술되어 있으며 오류 다수 • 수원화성 안내매체가 부족
----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화성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 • 디자인 요소를 방위, 지형,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자료로 설정 • 방위색을 부여한 국가유산 안내판과 깃발을 함께 사용하면 권역 구분이 명확 • 모든 안내판은 정면, 측면에 방위색을 넣어 시각적으로 권역구분을 명확화하여 디자인
----	---

② 국가유산 특징에 따른 디자인화

구분	수원화성 특징	디자인화
동서남북 권역	『화성성역의궤』에 축성당시 동서남북 권역을 설정되어 있음	동쪽(청색), 서쪽(흰색), 남쪽(붉은색), 북쪽(검은색) 전통 방위색 도입
평지와 산지	축성당시 동서남북 권역은 평지남성, 평지북성, 산상동성, 산상서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록이 존재함	평지남성, 평지북성, 산상동성, 산상서성 권역별 안내판에 지도와 지형도 추가
중복 시설물	기능에 따라 1~10개 중복 시설물이 있어 시설물명으로만 현 위치를 찾기 어려움	각 권역에서 몇 번째 안내판인지 알 수 있도록 숫자를 표기해 현 위치 표시
미복원 시설물	팔달문 좌우 구간은 미복원 됨	성곽지도에서 미복원시설은 구분하여 표현



방위색을 부여한 권역 안내판



방위색을 부여한 개별 안내판

③ 건축물 중요도와 위계에 맞춘 안내판 크기와 형태 디자인

대형	중형	소형
4대문(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수원화성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수문, 장대, 공심돈, 방화수류정 중요건축물	성벽 주변 시설물

- 대형

		전	후
4대문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 중형

	전	후
북수문		
남수문		
서장대		
동장대		
서북공심돈		

• 소형

	전	후
북포루 성내		
북포루 성외		
서북각루 성내		
서북각루 성외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I

안내판 정비 전

3. 안내판 Q&A

Q1 국가유산 안내판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유산 안내판은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알림판이다. 국가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살리고 서로 잘 어울리도록 단순하고 일관되게 디자인한다.

Q2 안내판은 어디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 국가유산과 주변 경관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안내판이 주인공이 아니므로 너무 크거나 높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국가유산 규모에 맞게 관람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한다.
- 흩어져 있는 안내판과 안내 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되어 보이게 한다.
- 하나의 국가유산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니라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해 구역을 통합하여 안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판만 설치한다.

» p. 92 안내판 설치 참고

Q3 안내판의 크기와 형태는 어때야 하나요?

-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관람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 면 단위 국가유산 안에 안내판을 여러 개 설치할 때는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되 일관되게 디자인 한다.
- 국가유산이나 건축물이 더 돋보이도록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한다.
- 국가유산에 어울리는 형태로,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비슷한 안내판은 형태를 통일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꾀한다.

» p. 78 안내판의 형태 및 크기 참고

Q4 안내판의 색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 국가유산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다.
- 관람자가 바라볼 때 편안하도록 저명도 ·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한다.
-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피하여 관람자의 눈의 피로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인다.
- 색상은 2~3가지 이내로 써서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한다.
- 안내판 기본 색상을 통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꾀한다.
- 글자 색은 바탕의 기본 색상과 잘 어울리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높이도록 한다.

- 경고와 주의 표시는 붉은색, 노란색 같은 진출색을 써도 되나 가급적 적게 사용한다.

» p. 81 안내판의 소재 및 색상 참고

Q5 안내판의 소재(재질)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 안내판의 소재(재질)는 국가유산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다양한 재질(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 등)을 사용한다. 단, 기존의 반사성이 심한 유리나 스틸 위주의 재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의 안내판 소재(재질)별 특징을 참고하여 적합한 소재를 사용한다.

» p. 81 안내판의 소재 및 색상 참고

Q6 안내판에 문안이나 도면 등의 그림,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나요?

표기 방식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오목새김 (음각) 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독성이 높고 깔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각 글씨 일부가 박락(긁히거나 떨어져 나감)하면 도료를 충진해야 함 부분 수정이 쉽지 않음
돋을새김 (양각) 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독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씨가 깎이거나 벗겨지는 현상 발생
인쇄 (실크, UV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각 방식보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씨가 벗겨지는 현상 발생
실사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 수정이나 교체가 쉬움 제작비가 저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이 바래거나 벗겨지므로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Q7 그 밖에 안내판을 설치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역 로고나 후원 기업의 상징 그림이나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넣어야 한다면 안내판 정면 오른쪽 아래나 옆면 적당한 곳에 작게 넣는다. 안내 정보를 읽는 데나 안내판 전체 디자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국가유산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는다. 이때는 국가유산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국가유산과 관련 있는 내용을 넣는다.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꼭 알맞은 곳에 되도록 작게, 도드라지지 않게 넣는다.
- 안내판의 문자는 한 가지 색만 쓰는 것을 권장하며, 안내 시설물 크기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한다.

» p. 83 안내판의 정보요소 참고

Q8 안내판을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 관람자의 동선을 분석하여 국가유산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관람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설치한다. 단,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Q9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내판 정비는 단순히 판 한두 개를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며, 국가유산 보수 정비나 국가유산 주변 환경 정비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담당자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현지조사와 분석을 한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안내판 정비의 핵심은 안내문안 개선에 있다. 안내문안의 구성요소를 갖춰 핵심 중심으로 작성한 뒤 디자인한다. 또한 국가유산을 안내하는 것은 안내판뿐만 아니라 안내책자, 해설사, 음성안내기 등이 있으므로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p. 12 안내판 정비과정 참고

Q10 안내판 정비 예산도 지원해 주나요?

-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안내판이 훼손되었거나 안내문이 어려워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Q11 새로 지정된 국가유산이 있어 안내문을 써야 하거나, 현재 안내문이 어려워 개선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문안은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쓰게 하고, 지역의 교사, 학생,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꾸려 검토를 받는다. 작성한 최종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 또는 전국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 p. 28 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운영 참고

Q12 안내판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야외의 안내판은 사진이 바래거나, 글자 페인트나 QR코드 등이 떨어져 나가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 지역의 국가유산돌봄단체 등을 통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내판 훼손, 청소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Q13 국가유산 안내문안 등 국가유산 안내판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국가유산 안내문을 교체하거나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다면, 완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안내문안, 재질, 현황 사진, 교체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 p. 123 안내문안 정보등록(DB입력) 참고

Q14 안내판 정비 시 자문이나 컨설팅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 국가유산에 관심이 많은 교사, 학생, 향토사학자, 문화유산 해설사 등이 있다. 이 사람들로 '시민자문단'을 꾸려 기획부터 디자인, 문안 작성과 감수, 제작 설치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의논하며 의견을 묻고 도움을 받는다.

Q15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유산을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개의 국가유산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적지 차원에서 안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분류	설치 기준	담겨야 할 정보	사례
종합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명 • 국가유산 이야기 • 전체 지도 • 연표 	 사천 각산산성
권역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국가유산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명 • 국가유산 이야기 • 권역 지도 	 천안 광덕사
개별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유산이 있는 경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명 • 국가유산 이야기 	 비인읍성

» p. 40 안내판 종류별 사례 참고

Q16 안내문을 쓸 때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 안내문은 국가유산을 관람하는 일반인이 읽는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배경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전체 길이는 대략 300자 이내로 제한하고, 문장은 20~30자 내의 단문으로 간략하게 쓰도록 권고한다. 긴 문장은 적절히 문단을 나누어 읽기 쉽게 한다.

Q17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간단히 설명 한다.

1) 안내문 아래에 주석 달기

공포가 익공* 양식으로 되어 있어 단아하다. ([안내문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익공 : 첨자(檐遮) 위에 소로와 함께 얹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

여주향교

2) 본문에 직접 풀어 쓰기

정문이란 충신·효자·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한다.

영동 덕수이씨 육세 팔효 정문

3) 본문에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기

하나의 돌로 된 연꽃 봉우리의 보주 寶珠: 부도의 상륜부에 놓인 둥근 모양의 구슬를 얹어 놓았다.

영월징효국사부도

» p. 21 국문, 영문의 표기 참고

Q18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문에 한자를 넣어도 되나요?

- 인물, 지명, 국가유산 명칭, 본문에서 한문을 풀어 주는 경우 말고는 한자는 쓰지 않는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다듬은 말(순화어)’에서 한자어를 대체할 우리말을 찾아 넣는다. 꼭 넣어야 한다면 소괄호 안에, 혹은 괄호 없이 작게 표기를 권장한다.

» p. 22 한자의 표기 참고

Q19 국호와 왕명, 연도, 연호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왕의 재위 연호는 꼭 써야 하나요?

- “조선 중종 때인 1530년”처럼 쓰기를 권장하며, 연호를 쓴다면 팔호와 ‘년’ 없이 “조선 중종 25년₍₁₅₃₀₎”, “조선 중종 25년¹⁵³⁰”과 같이 쓴다. 재위 연호는 생략해도 되며, 쓴다면 “고종_(1213~1259 재위)”이라고 쓴다.
- » p. 24 숫자의 표기 참고

Q20 사료에서 국가유산의 크기를 자, 치, 푼으로 표기했던데, 안내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 안내문의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은 미터법에 따르고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규모를 설명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적는다.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한 자는 약 30.3cm, 한 치는 3.03cm, 한 푼은 0.375g이다.

» p. 26 도량형의 표기 참고

Q21 파사드, 코린트 등 외래어나 외국 사람 이름은 꼭 병기를 해야 하나요?

-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은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 한다. 외국 인명이나 지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p. 21 국문, 영문의 표기 참고

Q22 안내문에 국가유산 소재지를 넣어도 되나요?

-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안내판이기에 위치 정보(소재지)는 쓰지 않는다. 제목 부분은 현장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인 명칭, 지정유형 등을 표기한다.

» p. 38 문안작성방법 참고

Q23 QR코드에 담을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QR코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p. 91 QR코드 참고

Q24 QR코드가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티커 같은 형태로 새로 만들어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에 붙이거나 안내판을 정비할 때 같은 위치에 QR 코드를 각인한다.

» p. 116 안내판 보수정비 참고

Q25 QR코드로 연결된 사이트가 안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정보가 담긴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거나 새로 개설되었다면 QR코드를 새로 제작하여 안내판에 설치한다.

Q26 안내문에 국가유산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나 전설 등의 이야기를 담으려 하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문화재청 누리집 –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문화유산 스토리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누리집에서 국가유산을 검색해 들어가서 국가유산 사진 밑 QR코드 옆에 ‘스토리’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Q27 오자는 없는지, 맞춤법이나 문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감수를 받으려 합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나 전국에 있는 국어문화원에 감수를 받는다.

■ 전국 국어문화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자우편	전화번호	비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서울 강서구	hannal@korea.kr	02-2669-9733	
세종국어문화원	서울 종로구	baro@barunmal.com	02-735-0991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서울 마포구	urimal@urimal.org	02-780-508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산 사하구	yun_clever@naver.com	051-200-7180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대구 북구	klrc@knu.ac.kr	053-950-7497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광주 북구	korjnu@naver.com	062-530-0313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 남구	ssongyb@ulsan.ac.kr	052-259-1911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경기 안산시	hykorean@hanyang.ac.kr	031-400-4513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강원 춘천시	korean8137@naver.com	033-250-8137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korean@chungbuk.ac.kr	043-261-3450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남 천안시	sea4994@naver.com	041-550-5391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전북 전주시	wjfadmsdl84@naver.com	063-220-3095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북 경산시	ccrk@ynu.ac.kr	053-810-3561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남 진주시	ckc@gnu.ac.kr	055-772-0761	

※ 해당 기관의 최신정보 확인 요망

■ 한국학중앙연구원(영문 안내문안 감수 가능기관)

기 관 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연 락 처	031-728-9884
대 표 전 자 우 편	heritage@aks.ac.kr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점자문안 감수 권고기관)

기 관 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연 락 처	02-880-0620
대 표 전 자 우 편	silwelart@gmail.com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II

안내판 정비 후

-
- | | |
|---------------------------|-----|
| 1. 안내판 보수정비 | 116 |
| 2. 안내판 보수정비 예시 | 120 |
| 3. 안내문안 정보 등록(DB입력) | 123 |
-

1. 안내판 보수정비



보수정비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는가?

1) 간단한 오류 수정

2) 거처를 수정(지정번호 및 명칭변경)

권고사항) 해당 안내판의 시공 및 설치한 업체와 논의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안내판 보수정비는 주로 안내판의 문안 및 내용, 변경된 지침을 수정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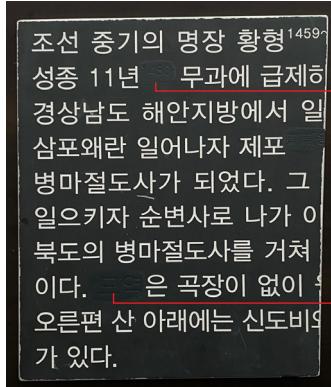
교체 방식은 부분만 보수하는 부분교체, 안내판 문안부분만 보수하는 상단교체, 안내판 전체를 교체하는 전면교체가 있다.

부분교체는 페인트, 시트지, 퍼티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하며 소규모 예산으로 작업하기 용이하다. 상단교체는 부착, 띠, 캡형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씌워 보수한다. 전면교체는 수정이 많을 경우 진행하며, 전면을 부착하거나 교체한다.

부분 교체

형태	방법	장점	단점
도색형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깔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인트 조색에 대한 전문 인력 필요
부착형	시트지를 사용하여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 기간이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외선에 취약(착색 및 균열 발생) 작업 전 수치 측정 및 사전조사 필요
보수형	퍼티를 사용하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 가림조치 중 손상이 가장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 보수 작업 불가능 페인트 및 시트지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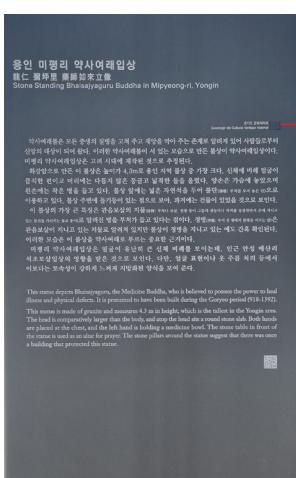
» 도색형



» 부착형



» 보수형



상단 교체

형태	방법
부착형	상단의 가림조치가 필요한 크기로 제작하여 부착
띠형	안내판을 일부분을 감싸는 형태
캡형	안내판 상단에 일부분을 씌우는 형태

▶ 부착형



▶ 띠형



▶ 캡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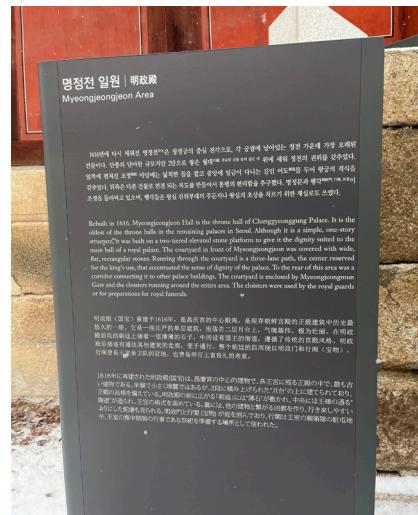
전면 교체

형태	방법	장점	단점
부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재질의 안내판 상판 제작 하여 안내판 위에 부착 		제작 비용 및 인력 필요
교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안내판에 적용 기존 상판 제거 후 같은 형식의 상판을 끼워 교체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체 가능한 형태의 안내판만 가능 제작 및 부착 장기간 소요

» 부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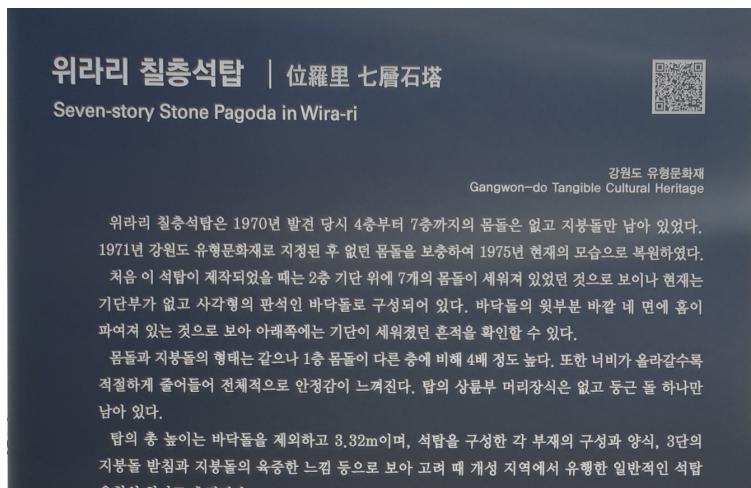
» 교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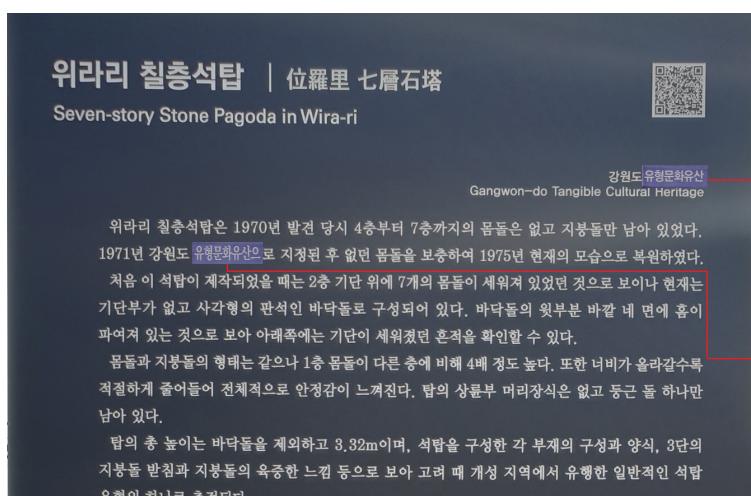
2. 안내판 보수정비 예시

부분 교체

» 정비 전



» 정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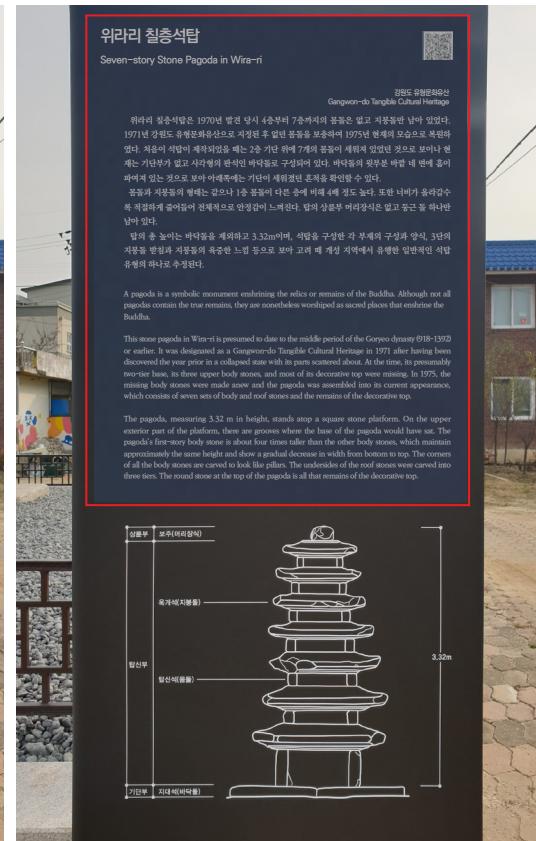


상단 교체

» 정비 전



» 정비 후



전면교체

▶ 정비 전



▶ 정비 후



3. 안내문안 정보 등록(DB입력)

» 안내문안 정보 등록

- 정비 대상 안내판 설치 후 15일 이내 정보등록을 해야한다.

- 방법 :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접속 → 국가유산 안내문안 정보 → 국가유산 검색 후 입력 진행

* 안내판 원경 사진(국가유산+안내판), 안내판 근경 사진(안내판 전체), 안내문안 상세사진(글자 식별이 가능한 사진)

- DB 입력 사진 예시



원경



근경



상세문안

1) 문화재행정시스템을 통한 국가유산 안내판 등록방법

- 국가유산 안내판 데이터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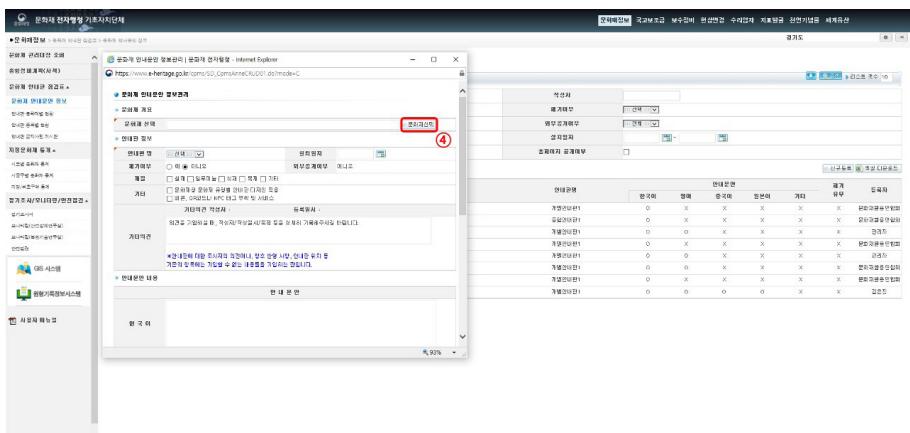
» 유의사항

- 국가유산 검색 후 데이터가 없을 경우 **신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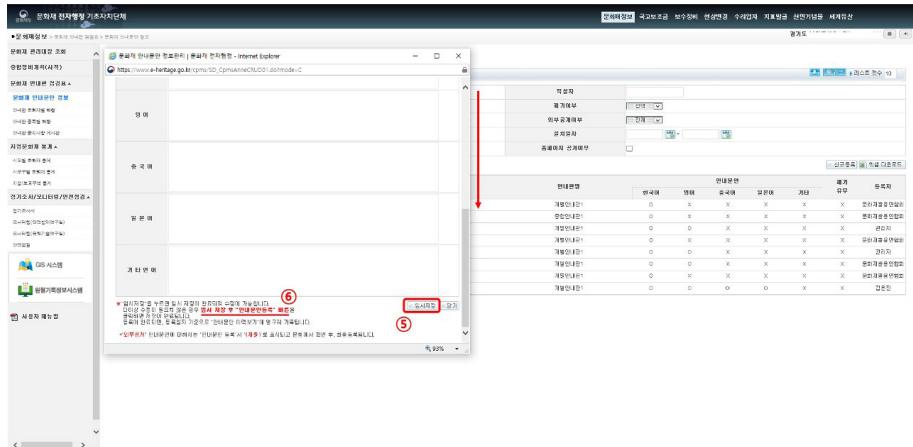
① 상단메뉴 ‘국가유산 정보’ → ② 왼쪽 메뉴 ‘국가유산 안내문안 정보’ → ③ 신규등록



④ 국가유산 선택



⑤ 임시 저장 → ⑥ 새로운 안내판 정보 기입 후 변경 등록진행



2) 문화재행정시스템을 통한 국가유산안내판 등록방법

- 국가유산 안내판 데이터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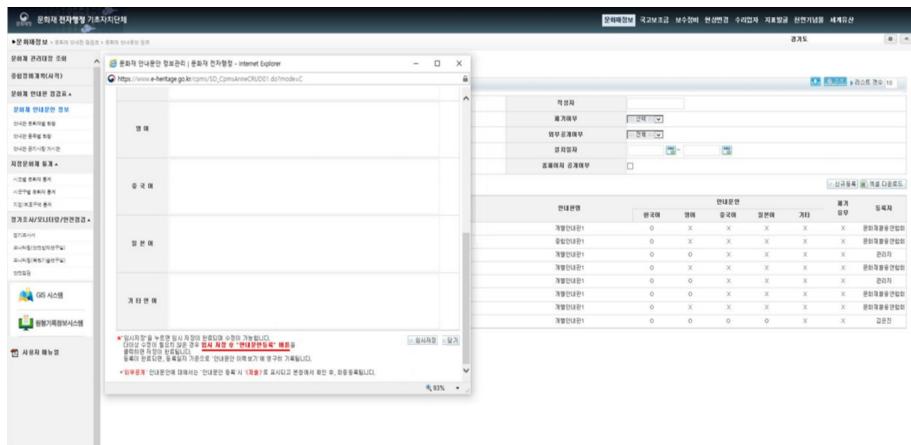
» 유의사항

- 국가유산 검색 후 데이터가 있을 경우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해당 국가유산 검색 → 새로운 안내판 정보로 변경 등록

기존 안내판 정보	변경된 안내판 정보
제작일자: 2021-12-17 제작부서: 아니오 제작자: 김민우 제작내용: 문화재 향토문화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적용 기타: 비콘, QR코드나 NFC 태그 부착 및 서비스	제작일자: 2021-12-17 제작부서: 아니오 제작자: 김민우 제작내용: 문화재 향토문화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적용 기타: 비콘, QR코드나 NFC 태그 부착 및 서비스

- 임시 저장 후 ‘안내문안 등록’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부록

문화유산 해설과 전달에 관한

이코모스 현장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이코모스 헌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세계문화유산을 연구, 기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서 1965년에 설립되었다. ICOMOS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데 어떠한 정신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숙의하였고,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0월 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16회 ICOMOS 총회에서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헌장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수 요건인 '해설과 전달'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세계의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하게 하는 데 있다. ICOMOS 헌장은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에 관한 아래의 물음에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대해 이미 합의되었거나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 어떤 구체적인 문화적 또는 전통적 맥락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 다양한 형태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 '해설과 전달'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1. 정의

1) 해설(Interpretation, 콘텐츠 기획과 연구)

문화유적지에 대해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증대시키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과 연구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출판, 강연, 현장 또는 다른 곳에 관련 시설의 설치, 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 활동, 해설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 교육 훈련과 평가가 포함된다.

2) 전달(Presentation, 연출과 제작)

문화유적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해설할 대상의 정보, 물리적 접근성, 해설 기반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해설된 콘텐츠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이 있으며, 정보 패널(안내판), 박물관식 전시물, 체계화된 워킹 투어, 강연, 해설사 인솔 관람,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각종 웹사이트가 포함된다.

3) 해설 기반 시설(Interpretive infrastructure)

기존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에 활용될 수 있는 물리적 설치물, 각종 시설, 유적지 및 유적과 연관된 장소를 말한다.

4) 유적지 해설사(Site interpreters)

문화유적지에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공공과 소통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5) 문화유적지(Cultural Heritage Site)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고 많은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장소, 지역, 자연환경, 정주 지구, 건물군, 발굴 현장, 건조물 등을 말한다.

2. 목표

원칙 1 – 접근성과 이해 (Access and Understanding)

원칙 2 – 정보의 출처 (Information Sources)

원칙 3 – 배경과 맥락의 고려 (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원칙 4 – 진정성의 유지 (Preservation of Authenticity)

원칙 5 –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Planning for Sustainability)

원칙 6 – 관계 당사자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 (Concern for Inclusiveness)

원칙 7 – 연구, 교육 훈련, 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이 7가지 원칙에 따른 현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유적지를 공공이 보다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 문화유적지의 의미를 다양한 청중과 소통한다.
- 3) 문화유적지의 유형, 무형 가치를 자연·문화·사회적 맥락을 유지하며 보호한다.
- 4) 문화유적지의 진정성을 존중하여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해설, 방문객으로 인한 피해, 이해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방지한다.
- 5) 문화유적지의 지속 가능한 보존에 기여한다.
- 6) 문화유적지의 해설에 모든 관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7)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적 지침을 작성. 내용에는 기술, 연구, 교육 훈련 등을 기술한다.

3. 원칙

1) 원칙 1– 접근성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공의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 1-1) 개인적 경험, 공공의 존중과 이해를 증대한다.
- 1-2) 개인과 지역 사회가 문화유산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 1-3) 청중을 인구 구성 및 배경 문화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 1-4) 방문객의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 1-5) 공공이 물리적으로 각종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1-6) 안전 등의 이유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유산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칙 2–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s)

‘해설과 전달’은 보편적인 과학적 학술적 방법 및 현재 살아 있는 문화 전통에 의해 집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2-1) 해설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방문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 2-2) 해설은 여러 전문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
- 2-3) 구전 또는 증언이 중요한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 2-4) 미술, 건축 모델,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때는 자연환경, 고고학, 건축학, 역사학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야 하며 여러 결과가 있을 때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한다.
- 2-5) ‘해설과 전달’ 자료는 미래에 분석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 원칙 3 – 배경과 맥락의 고려(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 3-1) 유산의 해설은 역사적, 정치적, 영적, 예술적 맥락 등 다방면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3-2) 유적의 발전 단계에 따른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고 연도를 제시해야 한다.
- 3-3) 유적의 해설은 현장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기여한 모든 집단을 기록해야 한다.
- 3-4) 유적의 주변 자연환경은 그 유적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3-5) 문화적, 영적 전통, 구술 이야기, 음악, 춤, 풍습 등 무형적 전통도 포함하여야 한다.
- 3-6) 유적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해설을 고려해야 한다.

4) 원칙 4 – 진정성의 유지(Preservation of Authenticity)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은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4-1) 유적 관련 프로그램은 현장의 사회적 기능과 인근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 4-2) ‘해설과 전달’을 통해 유적의 의미를 전달하되 회복 불가능하게 현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 4-3) 시설물 등은 현장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4) 현장에서 열리는 공연 등도 현장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칙 5 –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Planning for Sustainability)

문화유적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자연·문화적 환경의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 목표의 일부로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문화재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	042-471-6492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기획 및 편집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외부 원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강혜원 수원시청 문화유산관리과 오선희
영문 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강혜원 린지 트와이닝
감수	대전시청 문화유산과 김현옥 경주시청 문화재과 박미애
자료협조	(주) 고담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2272-01
ISBN	978-89-299-3046-2 9360

저작권자 © 문화재청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ISBN 978-89-299-3046-2 93600